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4 | 1994

성도의벗 4 1994

표지 설명:
제니 플린과 친구. 영국 브로드웨이에 살고 있는 플린 가족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가족이 함께 화합하고 자립하는 것을 배운다. "다 같이 하나되어" 38쪽 참조.
(표지 사진 촬영: 리차드 엠 롬니)

어린이란 표지 설명:
그림:낸시 시몬스 크룩스톤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2

중국에서 온 보물 제니 쉐일러 8

모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음
디 켈리 옥든과 알 볼 존슨 10

가르침의 순간 메리 모릴 24

죄와 고통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26

요셉 스미스 기념관 34

손과 마음으로 봄 쿵 테드 누언 44

청 소 년 란

브롱크스의 소년 엘리자 터너 20

노래 가사 페이지 매리엇 33

다 같이 하나되어 리차드 엠 롬니 38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성찬을 통해 구세주를 기억함 25

교회 및 지역 소식 65

어 린 이 란

몰몬경 이야기 : 조랠인과 래미움프톰 50

친구가 친구에게 :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 53

함께 나누는 시간 : "계명을 지키라" 주디 에드워드 56

멕시코로부터 온 사랑 58

이야기 : 피터의 부활절 메시지 게일 엘리스 60

성찬 책 크리스틴 브랜치 63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간－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윅스 리, 리차드 지 스코트
편집인 : 렉스 디 피너가, 조 제이 크라스턴슨
고문 :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콘디,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
관리 책임자 : 로날드 엘 나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 엠 엠 기와사끼
성도의 벗 :
관리 편집인 :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 알 발 존슨
부편집인 : 데이비드 미첼
편집인 보조/어린이란 : 다앤 워커
스케줄 관리 : 매리앤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 스코트 밴 캠펜
디자이너 : 새리 쿡
생산 관리 : 레이널드 제이 크리스턴슨, 제니퍼 태트와일러, 제인 앤 켐프, 데니즈 커비
구독 담당 스탭 :
발행 부수 책임자 : 토마스 엘 피터슨
배부 부장 : 조이스 랜슨
마케팅 부장 : 켄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 : 제336호, 제31권, 제4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4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한　　상　　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 이 세 용
© 1994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2. 번역 승인－10/92.
March 1994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4984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s;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읽고 함께 나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사랑과 지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달 *리아호나*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이 된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때 활동이 저조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훌륭하신 두 분의 선교사님들 덕택으로 다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여덟 자녀들 가운데 네 자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와드 건물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석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집 차고를 깨끗이 치워서 이 지역 회원들을 위한 집회소로 제공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지부가 생겨서 매주 성찬식에 평균 30~4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간행물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리아 버지니아 히메네스 데 로리노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스테이크
살라딜로 와드

주께서 나를 축복하심

팔십이 넘은 나이 많은 자매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1977년 선교사들이 저의 집을 방문해 줌으로써 제 인생에 찾아온 복음 메시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몰몬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비교해 봄으로써 마음속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혜사이신 성신을 보내 주셔서 만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선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4 : 26 참조)

저는 특히 *리스오버노르게*(노르웨이어 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성도들의 간증을 즐겨 읽습니다.

헬리너 올슨
노르웨이 오슬로 스테이크
프레드릭스타드 와드

결혼 생활의 실체

1993년 2월호에 "배우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명한 권고를 주신 멜빈 엘 프루이트 형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제가 난생 처음으로 결혼 생활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으며, 아울러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매달 간행될 때마다 제가 개심의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 생활에 대한 모범들은 늘 저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타니슬라오 루나 산체스
페루 공군
페루 시슬라요

결코 지루하지 않음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우리 각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올해 열 여섯 살인데, 사람들은 제가 경전 및 기타 교회 서적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를 따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책들은 저를 교화시키고 제 삶에 도움이 됩니다.

1993년 5월호에 청녀인 베키 잭슨이 학교 뮤지컬에서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다는 내용의 "주연 배우"라는 기사를 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모범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나 엘루비아 리마 오렐라나
과테말라 우타틀란 스테이크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 이 편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랑과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진리를 우리 가족에게 가르칩시다.

최근 출판물이나 대중 매체에 "내세"가 실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듯한 경험에 관한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고대의 예언자가 제기했던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리이까"(욥기 14:14)라는 의문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누이신 후 영의 세계에서 성역을 베푸심으로써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이 타락하여 이 세상에 죽음을 불러 오기 전부터 결국 이 필멸의 인생을 떠나게 될 영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당시 영의 세계에는 아담의 후손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자녀들과 악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는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의로운 영들은 행복하고 화평스러우며 즐거운 생활을 하는 상태인 낙원으로 갔으며, 불의한 영들은 어둠과 불행의 상태인 영옥으로 갔습니다(앨마서 40:12~15 참조). 예수

님은 낙원에 있는 의로운 영들만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게 주어져서 1976년 4월에 교회에 의해 성스러운 경전으로 지지되고 받아들여진 죽은 자들의 구속에 관한 영광스러운 시현의 일부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의로운 자의 영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라. 이들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였고,

"…구속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겪었느니라.

"이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는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현세를 떠난 자들이니라."

"나는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으며, 그들의 구원의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았나니,

"그들은 한데 모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에 오시어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 나는 그들의 구속을 선언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으며,…

이 수많은 무리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 나는 그들의 구원의 때를 기뻐하고 기다리며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어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더라.

"그곳에서 그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그리고 타락에서 구원받고 회개의 조건하에서 개인의 죄로부터 풀려 나는 인간의 구속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셨느니라.…

"성도들은 그들의 구속을 기뻐하였고, 무릎을 꿇어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지옥의 사슬로부터 구해 낸 그들의 구속주와 구원자라고 말하였나니,

"그들의 얼굴은 빛났으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생기는 광채가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38 : 12~16, 18~19, 23~24)

예수님은 영옥에 가서 악한 영들은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육체로 있을 동안 자신의 몸을 더럽힌"(교리와 성약 138 : 20) 영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의로운 영들 중에서 택하여 그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위임하셨나니,…

"이러한 영들(어둠속에 임하는 자들의 영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를 버리는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대리 침례,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배웠으며,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다른 원리도 배웠"(교리와 성약 138 : 30, 33~34)습니다.

영의 세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장막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때로는 현세와 내세 사이에 놓여 있는 장막이 무척 얇아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을 떠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교회의 대관장 한 분은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신 후, 스스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영들은) 이 조직된 지구의 경계를 넘은 곳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지구상에 영원토록 거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자신의 육체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가게 되면, 영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난 영을 마치 육안으로 살아 있는 사람을 보듯이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 : 369, 368).

그렇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상 생활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며, 영의 세계 역시 그렇습니다. 필멸의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필연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이 결국 부활하게 된다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삼일 만에 큰 지진이 있었으며,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 옮기워졌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헌신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중에 속하는 몇몇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왔다가 "예수의 시체가 뵈지 아니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간단하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 : 3~6)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말만큼 극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 주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경전은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요셉 스미스를 통해 가족은 무덤 저 너머까지 계속되며 서로에 대한 동정심과 애정과 사랑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부활보다 더 전 우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도 빠짐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린도전서 15 : 22)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은 직후에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마태복음 27 : 52~53)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와 그분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듯이 실제로 삼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셔서 몸소 "부활이요 생명"(요한복음 11 : 25)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육체와 재결합하여 다시는 분리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간증과 증거가 많이 있으며, 증인도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몇몇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으며, 이 밖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보이셨"(고린도전서 15 : 6, 8)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십 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된 것들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많은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기록으로 남은 것에 관해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요한복음 20 : 31)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승천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자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 놓으신 엄숙한 자리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앞까지" 왔을 때, 예수님은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누가복음 24 : 50)을 주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축복을 하실 때에 들리워져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사도들이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열 한 제자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 : 9~11)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기쁨에 넘쳐 경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그분의 영이 그분의 육신으로 되돌아간 일이었던 것처럼 승천은 그리스도의 육신이 문자 그

대로 하늘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라고 하신 말씀을 좀더 완전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덤이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극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이 시대에도 이미 세상을 방문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을 입으시고 승영에 이르셨으며, 아버지 아래에서 이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1820년에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요, 이 지상의 창조주이신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 시대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서 2:17)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사실이 아니며, 아마도 요셉 스미스가 상상해서 지어 낸 이야기일 것이라는 그릇된 괴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해치고 또한 예수님이 요셉에게 오셔서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며 하셨던 간증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래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겸손하게 간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다음은 요셉 스미스와 시그니 리그돈이 1832년 2월에 받은 영광스러운 시현에 관한 간증입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24)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띠를 끊으신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구세주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요한복음 14:19)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일의 계시를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은 특별한 의미를 더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요셉 스미스를 통해 가족은 무덤 저 너머까지 계속되며 서로에 대한 동정심과 애정과 사랑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초기 사도 중의 한 분이셨던 팔리 피 프랫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의 아름다운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며,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도록 해주는 공감대와 애정이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도 바로 요셉으로부터입니다. 요셉은 저에게 우리가 이 애정을 가꾸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영원토록 증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한 아들로서 맞이하게 되는 진정한 존엄성과 운명을 배우고 영원한 신권으로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가족의 축복사요 통치자가 된 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여성의 가장 높은 존엄성은 남편의 왕후요 여제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운 것도 바로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입니다.…

"전에도 저는 사랑을 했지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수하게 한층 고양되고, 이 천박한 영역의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제 영혼을 들어 올려 마치 대양과도 같이 넓게 펼쳐 주는 승화된 느낌으로 사랑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형제이시며, 제 사랑하는 아내는 불멸의 영원한 동반자며, 위안자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서 제게 주어진 친절한 구원의 천사임을 느낌으로 압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저는 이제 영과 이해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팔리 피 프랫 자서전*, 솔트레이크시티 : 데져렛 출판사, 1986년, 297~298)

부부가 함께 주님의 집에 가서 가족을 무덤 저편에까지 묶어 주는 인봉 의식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축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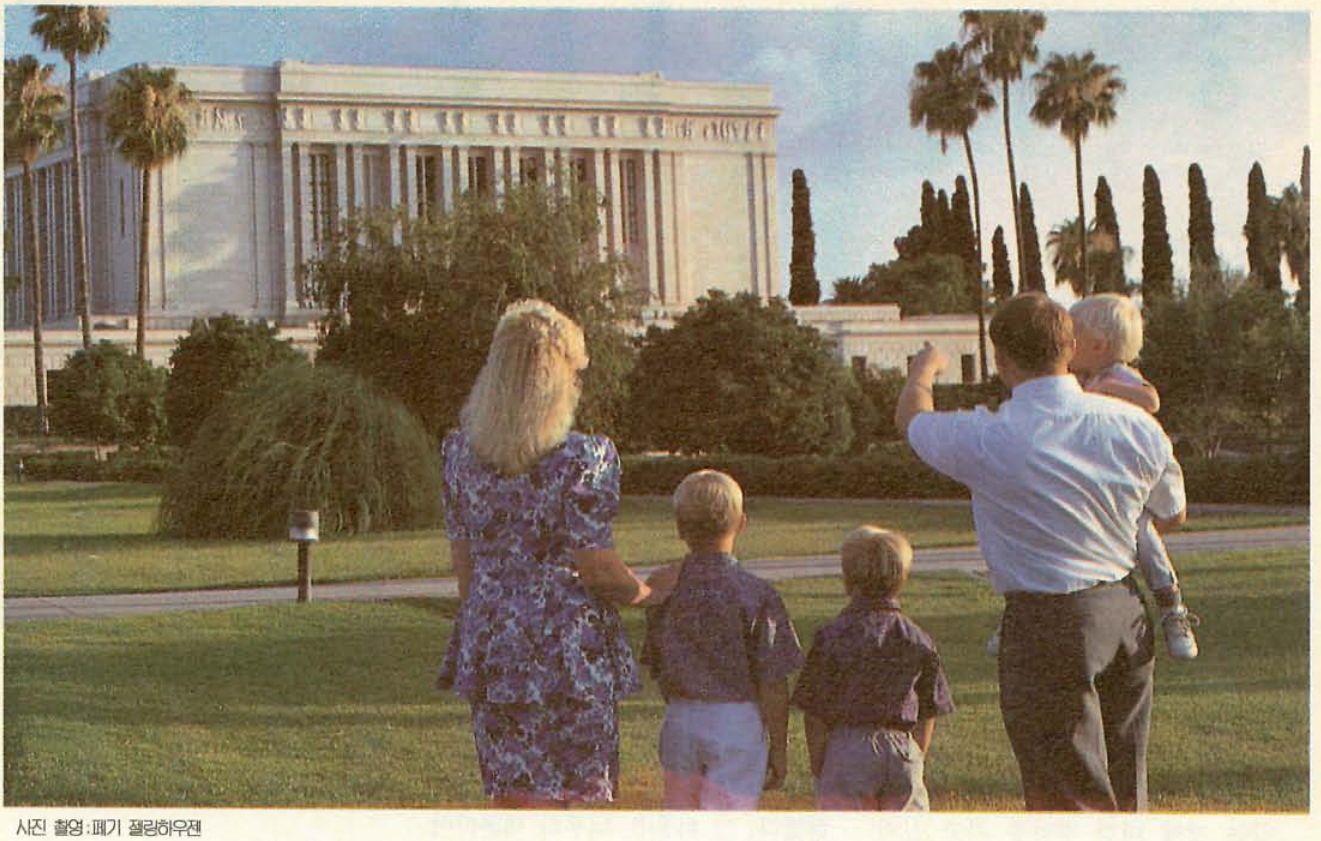


사진 촬영: 페기 젤링하우젠

부부가 함께 주님의 집에 가서 가족을 무덤 저편에까지 묶어 주는 인봉 의식을 받는다면 영원한 사랑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영광을 얻을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2:21)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한 증식입니다.(교리와 성약 132:19 참조)

그러나 우리가 가족을 함께 인봉하는 데 따르는 또 다른 책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한복음 14:12)

주님께서 이 말일에 위임하신 사업 중 하나는 승영의 의식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 있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을 위한 의식 및 인봉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 우리와 같이 심판받게 해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즉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의식을 제공하는 일을 여러분 역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친척 가운데서 이 인봉 의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장막 이편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가? 나는 나의 선조들에게 구원자가 되는가?"

그분들 없이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승영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막 이편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랑과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고 계시는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삶이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간증은 수없이 많이 있다.

2.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을 위한 대리 의식을 받도록 위임하셨다.

중국에서 온 보물

제니 쉐일러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992년 10월의 어느 아름다운 아침에 그 보물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다.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꾼 이상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은 꿈 속에서 우리 친정 집안의 누군가가 나타나 남편에게 우리 가족의 족보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나를 중국 본토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답했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나를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나는 몹시 놀랐다. 나는 몇 달 후에 있을 딸의 결혼식 때문에 홍콩에 갈 계획을 이미 세워 두고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우리 족보가 보관되어 있는 중국 본토의 고향 마을로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남편의 꿈 때문에 나는 그 여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가슴이 설레이는 한편 혼자 중국으로 간다는 것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다. 내 사위도 홍콩에 갈 예정이었는데, 그 사위가 동행해 주겠다고 했다.

1992년 12월 16일, 우리는 홍콩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의 꽝조우로 갔다. 꽝조우에서 11시간 동안 또 다른 기차를 타고 마오멩시로 가서는, 그곳에서 3시간 이상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그 마을로 갔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니, 삼촌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삼촌은 그 전날 밤에 나의 방문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던 것이다. 삼촌이 나의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에 나는 삼촌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나는 족보에 관해 물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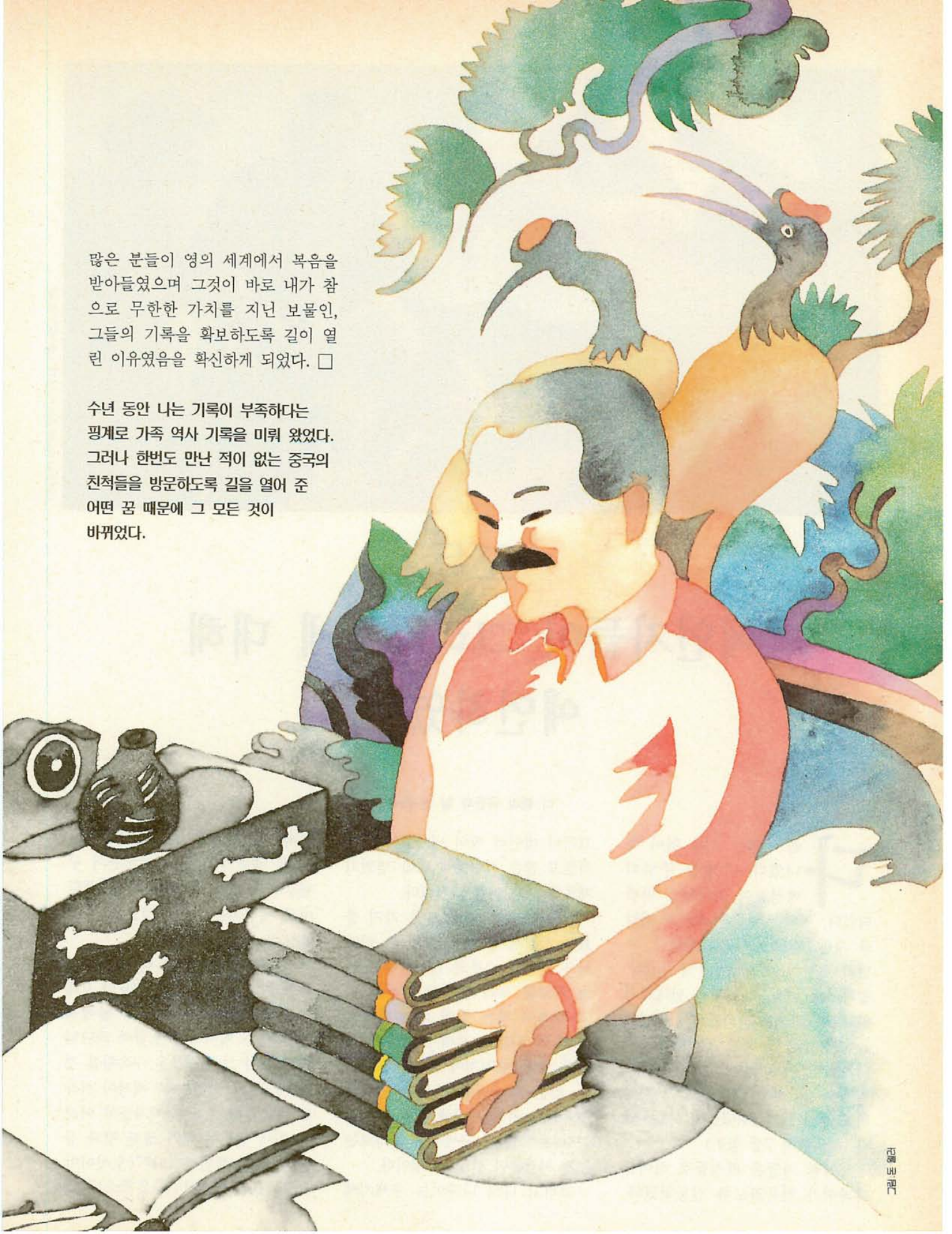
삼촌은 근 700년 동안의 족보가 기록되어 온 일곱 권의 책을 가져왔다. 그곳에는 출생 일자와 사망 일자 뿐만 아니라 각 조상에 대한 짤막한 역사 기록도 나와 있었다. 나는 감격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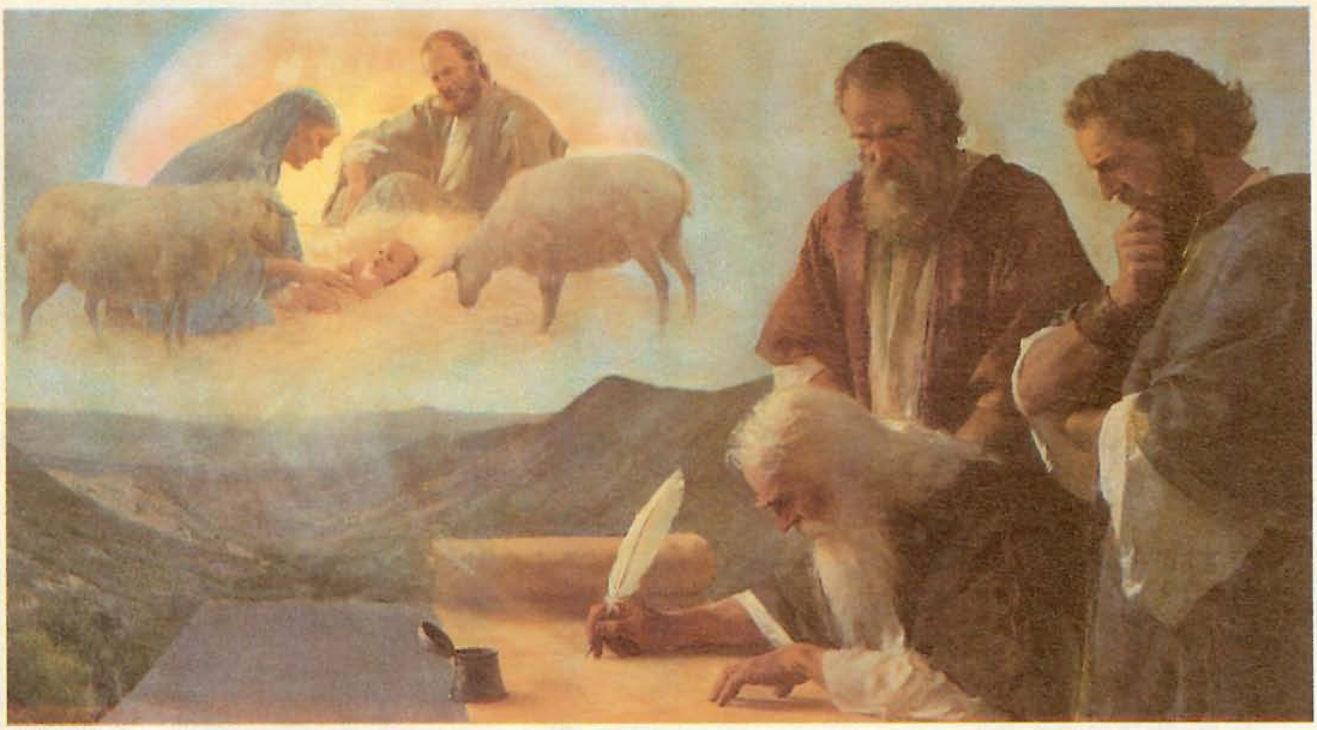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그 마을은 너무나 벽촌이어서 사진 복사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도물도 없었다. 그 기록을 손으로 옮겨 적으려면 수 개월은 걸릴 것이었다. 내가 그러한 염려를 털어놓자 삼촌은 웃음을 지었다. 삼촌은 내가 가져 갈 수 있는 여분의 책이 있다고 말씀했다. 사위와 나는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가난했으며 그 여분의 책을 만드는 데는 틀림없이 많은 돈이 들었을 것이다.

수년 동안 나는 기록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가족 역사 기록을 미뤄왔었다.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다.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조상 중

많은 분들이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바로 내가 참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물인, 그들의 기록을 확보하도록 길이 열린 이유였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

수년 동안 나는 기록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가족 역사 기록을 미뤄 왔었다. 그러나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중국의 친척들을 방문하도록 길을 열어 준 어떤 꿈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 헨리 앤더슨

모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음

디 켈리 옥든과 알 볼 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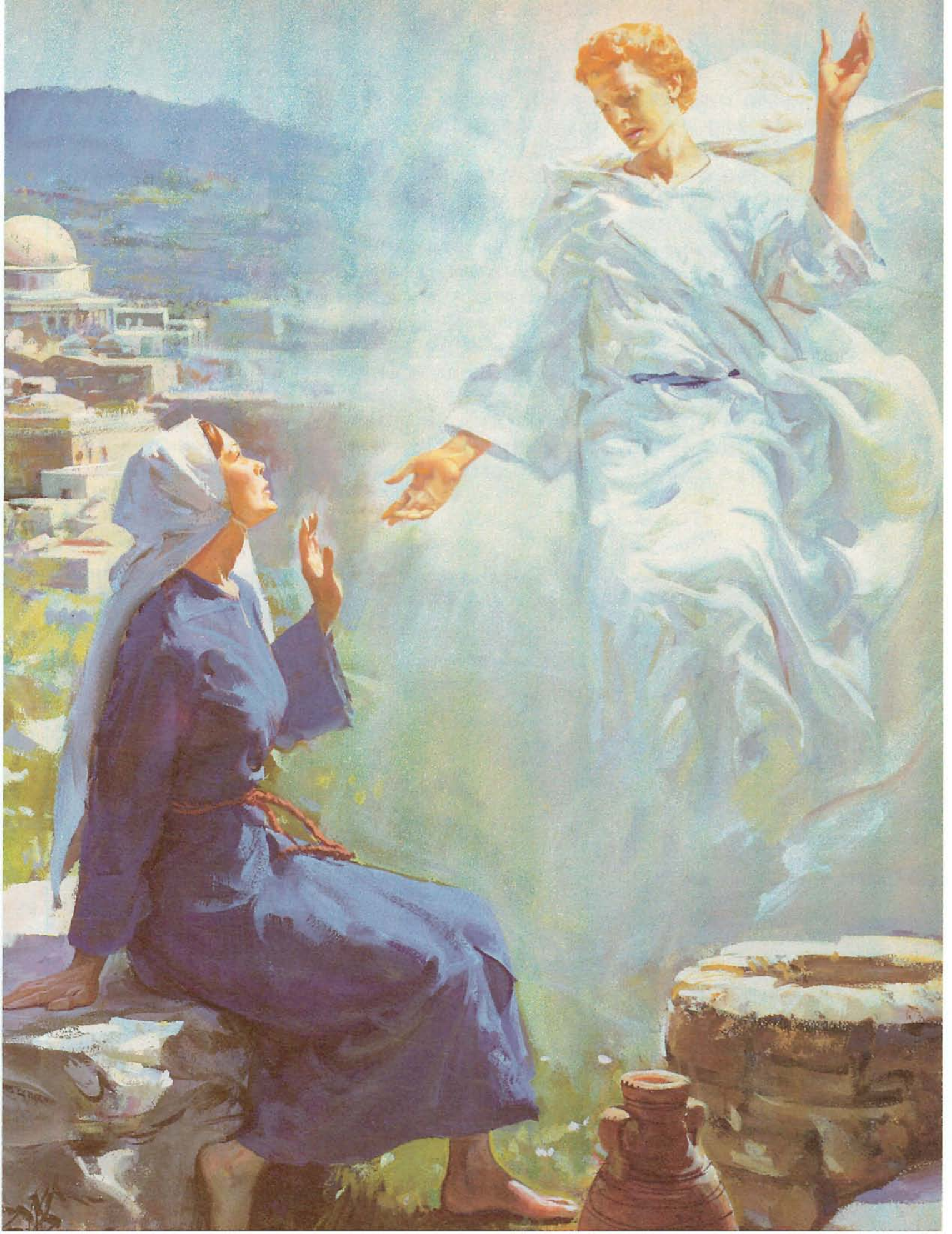
다음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자랑스러워 하기조차 하였다. 주님의 응답이 예언자에게 주어졌다.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니파이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었으며 니파이인 지도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비밀 결사에 가담하였음을 폭로하였다.(힐라맨서 7장 참조)

사악한 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니파이가 침묵하도록 선동하였다. 그러나 예언의 영이 니파이에게 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해를 면하였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이 행복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전해 오셨다는 것이다. 이들 메시지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구세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니파이는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였던 "많은 예언자"들을 지적하면서 구세주의 오심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여러 예언자들을 열거하였다.(힐라맨서 8:11~22 참조)

이러한 고찰은 비단 니파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오래 전에 아빈아다이는 노아 왕에게 "모세가… 메시야의 오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에 관하여 내가 말한 것과 상이한 것을 예언하더냐?"(모사이야서 13:33; 앨마서 34:2 참조)라고



이야기하였다.

니파이인들이 곧 다가올,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몰몬경에 나오는 계시들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니파이인들은 메시야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울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또 그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구체적인 많은 성역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고통을 겪고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와 또 그분의 부활이 모든 인류를 죽음의 사슬에서 구해 내리라는 것까지 알았어야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으며 또 그 놀라운 은사를 받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 했던 것이다.

최소한 주님이 성역을 베푸시던 당시에 살지 않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주님에 대해 니파이 백성들만큼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메시야의 오심을 살피는 데 있어서 많은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예언들이 주어져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고 없이 지상에 오시지는 않으셨다. 아담으로부터 침례 요한까지, 또 리하이로부터 레이맨인 사무엘까지 모든 예언자들이 구세주의 오심에 대해 간증하며 그분의 속죄에 관해 가르쳤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인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순전한 억측이라고 물리쳐 버렸다. 만일 우리가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가 가르쳤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면, 그 예언들에 정통해서 구세주의 오심을 기뻐하였을까? 아니면 우리도 정도를 지나쳐 눈이 어두워졌을까?

다음 쪽에는 메시야의 성역과 관련된 많은 예언들이 요약되어 있다.

디 켈리 옥든은 브리감 영 대학교의 고대 경전과 부교수이며 알 볼 존슨은 본부 성도의 벗 편집국장 보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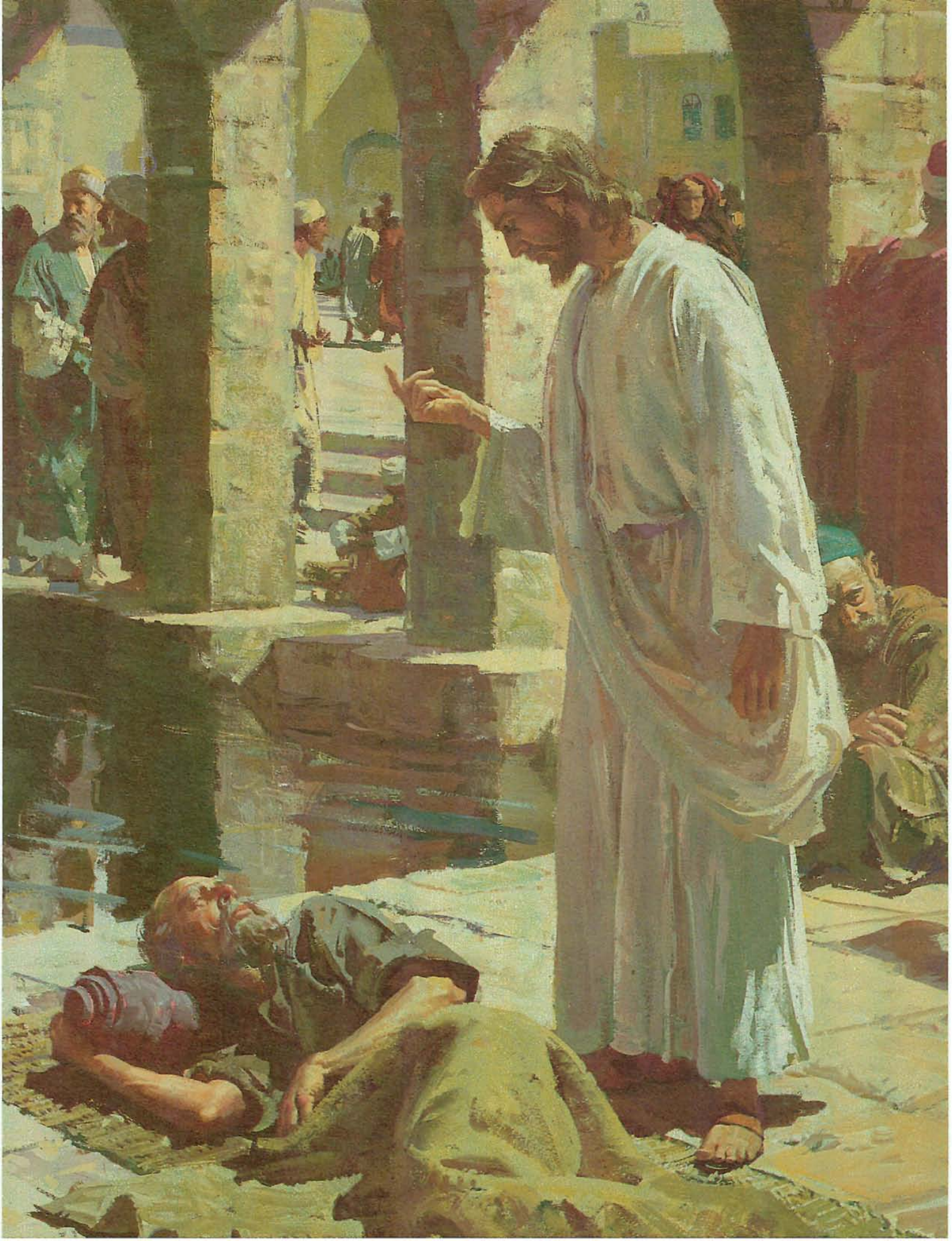
내 아버지 집, 해리 앤더슨: 퍼시픽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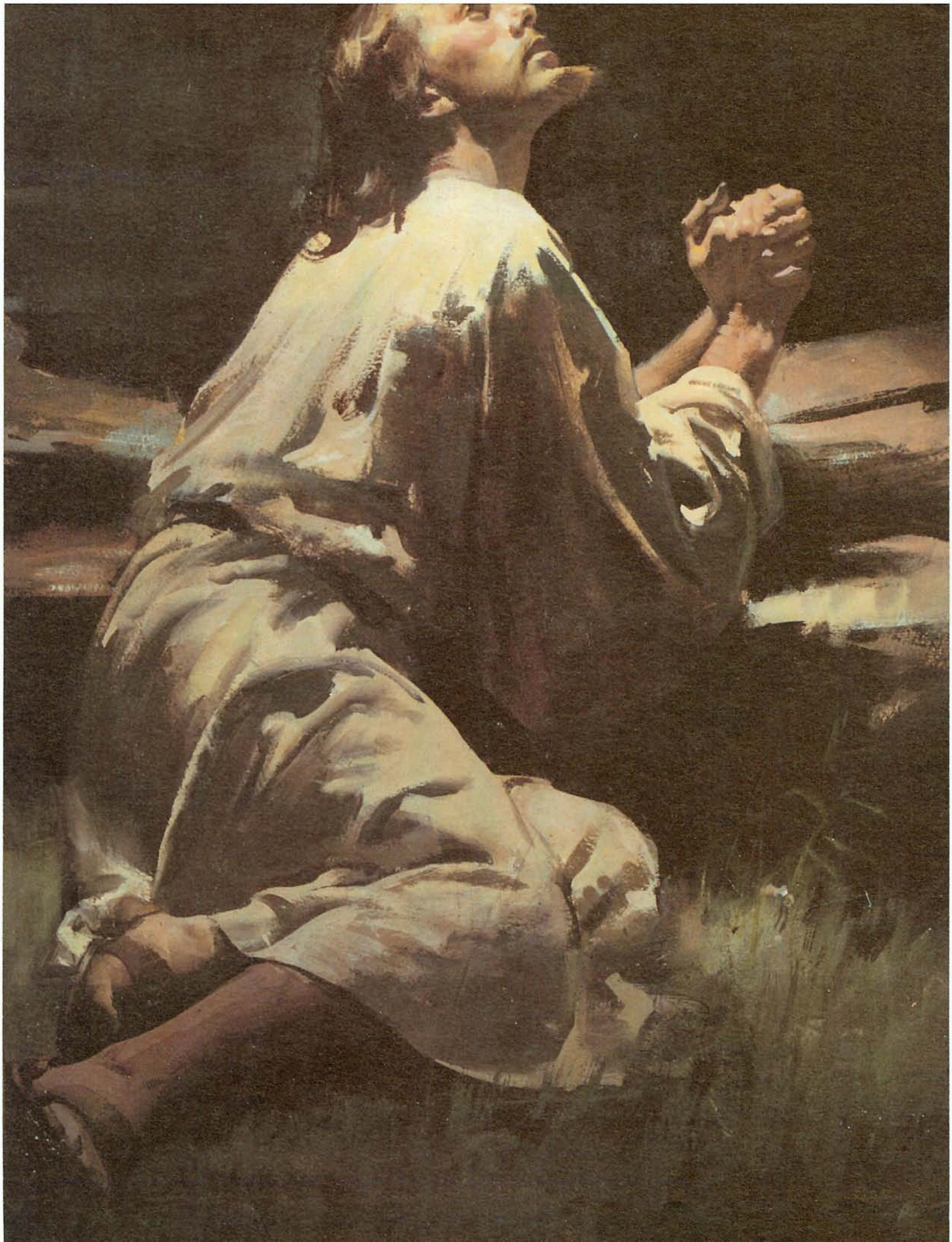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한 상세한 예언

예언	말한 사람/기록한 사람	참조 성구
그리스도의 탄생		
■여호와이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것임.	야렛의 동생, 이사야, 니파이, 지노스, 야곱, 베냐민 왕, 아빈아다이, 암몬, 라모나이, 침례 요한	이더서 3:6~16; 이사야 44:24; 니파이일서 19:7~12; 니파이이서 9:5; 모사이야서 3:5; 7:27; 13:34; 15:1; 앨마서 19:13; 교리와 성약 93:6~11
■그는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임.	아담, 에녹, 모세, 이사야, 니파이, 야곱, 아빈아다이, 앨마, 침례 요한	모세서 1:6, 33; 2:1, 26; 6:52; 이사야 9:6~7; 니파이일서 11:20~21; 22:12; 니파이이서 25:12; 야곱서 4:5; 모사이야서 15:2~5; 앨마서 5:48; 교리와 성약 93:11~14
■그의 어머니는 처녀로서 다윗 왕의 후손이며, 나사렛에서 나오겠고, 그 이름은 마리아가 될 것임.	야곱,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니파이, 베냐민 왕, 앨마	창세기 49:24; 이사야 7:14; 11:1; 예레미야 23:5~6; 33:15~16; 니파이일서 11:13~21; 모사이야서 3:8; 앨마서 7:10
■그의 탄생 시에 표적들이 주어질 것임.	레이맨인 예언자인 사무엘	힐라맨서 14:3~7
그의 이름		
■메시야는 "구원"으로 불리울 것임.(히브리어로 *예수아*; 영어로 *예수*)	모세, 이사야	출애굽기 15:2; 이사야 12:2~6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임.	아담, 에녹, 노아, 야렛의 동생, 모세, 니파이, 야곱, 베냐민 왕, 아빈아다이, 앨마	모세서 6:52, 57; 8:23~24; 이더서 3:14~16; 니파이이서 25:19; 야곱서 4:4~6; 모사이야서 3:8, 17; 15:21; 앨마서 5:48
그의 탄생 시기		
■예수님은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600년 후, 또 사무엘이 예언한 5년 후인 절정의 때에 태어나실 것임.	아담, 에녹, 모세, 리하이, 니파이, 레이맨인 예언자 사무엘	모세서 5:57; 6:57, 62; 7:45~46; 니파이일서 10:4; 19:8; 니파이이서 25:19; 힐라맨서 14:2
그의 탄생 장소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임.	미가, 야곱, 앨마	미가 5:2; 니파이이서 10:3; 앨마서 7:10

속죄 : 그의 구체적인 성역

■사자로서의 역할을 띤 예언자가 메시야의 성역을 위한 길을 준비할 것임.	이사야, 리하이, 니파이	이사야 40 : 3 ; 니파이일서 10 : 7~8
■그리스도는 애굽에서 나올 것임.	호세아	호세아 11 : 1
■그는 나사렛에서 자랄 것임.	니파이	니파이일서 11 : 13, 20
■그는 베다바라 근처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에게 침례받을 것이며, 성신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할 것임.	리하이, 니파이	니파이일서 10 : 9~10 ; 11 : 27 ; 니파이이서 31 : 4~8
■그는 유혹을 받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을 것임.	이사야, 베냐민 왕, 아빈아다이, 앨마	이사야 53 : 3 ; 모사이야서 3 : 7 ; 15 : 5 ; 앨마서 7 : 11
■그는 구대륙에서 열두 사도를 부르고 신대륙에서도 열두 제자를 부를 것임.	니파이	니파이일서 11 : 29, 34; 12 : 6~10
■그는 반가운 소식을 전할 것임.	이사야	이사야 61 : 1
■그는 목자로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보살필 것임.	이사야, 에스겔	이사야 40 : 10~11 ; 에스겔 34 : 11~31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임.	모세, 다윗, 앨마	요셉 스미스역 창세기 14 : 25~31 ; 시편 110 : 1~4 ; 앨마서 13 : 7~9
■그는 권세로 행하시며 기적을 베푸실 것임.	이사야, 니파이, 야곱, 베냐민 왕, 아빈아다이, 앨마	이사야 59 : 16~19 ; 니파이일서 11 : 28, 31 ; 니파이이서 10 : 4 ; 모사이야서 3 : 5~6 ; 15 : 6 ; 앨마서 5 : 50
■그는 시온(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임.	이사야	이사야 59 : 20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오실 것임.	스가랴	스가랴 9 : 9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며 그들은 그를 거부할 것임.	다윗, 이사야, 니파이, 야곱	시편 118 : 21~22 ; 이사야 8 : 13~14 ; 53 : 3 ; 니파이일서 11 : 28 ; 19 : 13 ; 니파이이서 10 : 3~5 ; 25 : 12 ; 야곱서 4 : 15
■그는 친구에 의해 은 삼십 냥에 팔릴 것임.	다윗, 스가랴	시편 41 : 9 ; 스가랴 11 : 12~13 ; 13 : 6
■그의 성역에 대한 예표.	아담, 에녹, 야곱	모세서 6 : 62~63 ; 니파이이서 11 : 4





속죄 : 그의 고통

■그리스도는 고통을 겪으실 것임.	이사야, 지노스, 니파이, 아빈아다이	이사야 50 : 6 ; 53 : 7 ; 니파이일서 19 : 9~12 ; 모사이야서 15 : 5~6
■그는 흠이 없으실 것임.	이사야	이사야 53 : 9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속죄하실 것이며, 우리의 병을 고치도록 도와주실 것임.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실 것임.	이사야, 야곱, 베냐민 왕, 앨마, 앰율레크, 아론	이사야 53 : 3~12 ; 니파이이서 9 : 21~22 ; 모사이야서 3 : 7 ; 앨마서 7 : 11~13 ; 21 : 9 ; 34 : 8~9
■그는 심문을 당하고 감금당할 것임.	이사야, 니파이	이사야 53 : 8 ; 니파이일서 11 : 32
■그의 고통에 대한 예표	아브라함, 이삭, 모세, 야곱	창세기 22 : 1~4 ; 레위기 16 : 7~10 ; 야곱서 4 : 5

속죄 : 십자가에 못박힘

■그리스도는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가실 것임.	이사야, 리하이, 니파이, 아빈아다이	이사야 53 : 7, 9, 12 ; 니파이일서 19 : 9~10 ; 니파이이서 2 : 6~7 ; 모사이야서 15 : 6~7
■그는 그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히실 것임.	에녹, 지노크, 니움, 리하이, 니파이, 야곱	모세서 7 : 47, 55 ; 니파이일서 10 : 11 ; 11 : 32~33 ; 19 : 10 ; 니파이이서 6 : 9 ; 10 : 3~5 ; 25 : 13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임.	다윗, 이사야, 스가랴	시편 22 : 16 ; 이사야 22 : 23~25 ; 스가랴 12 : 10 ; 13 : 6
■그는 조롱을 당하고 고통과 갈증을 겪을 것임.	다윗, 이사야, 베냐민 왕	시편 22 : 7~8 ; 이사야 50 : 6 ; 모사이야서 3 : 7
■그에게 신포도주가 주어질 것임.	다윗	시편 69 : 20~21
■그는 십자가 위에서 특별한 말을 할 것임.	다윗	시편 22 : 1 ; 31 : 5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임.	다윗	시편 34 : 19~20
■그의 옷이 제비뽑아 나누어질 것임.	다윗	시편 22 : 18
■그는 무덤에 묻힐 것임.	지노스, 니파이	니파이일서 19 : 10 ; 니파이이서 25 : 13
■그가 죽을 때 표적이 보일 것임.	지노스, 니파이, 레이맨인 예언자 사무엘	니파이일서 12 : 4~6 ; 19 : 10~13 ; 힐라맨서 14 : 20~28
■그의 속죄와 사망에 대한 예표.	아담, 이브, 에녹,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에스겔, 니파이, 야곱, 앨마, 니파이(힐라맨의 아들)	모세서 5 : 4~7 ; 6 : 63~68 ; 창세기 22 : 1~14 ; 출애굽기 12장 ; 16 : 12~35 ; 17 : 1~7 ; 29장 ; 레위기 1~17장 ; 21~23장 ; 민수기 19장 ; 21 : 5~9 ; 에스겔 43 : 18~27 ; 45 : 18~25 ; 니파이일서 17 : 41 ; 야곱서 4 : 4~5 ; 앨마서 33 : 18~23 ; 힐라맨서 8 : 13~15

속죄 : 그의 부활

■예수님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증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임.	리하이, 니파이, 베냐민 왕	니파이일서 10 : 11 ; 니파이이서 25 : 13~14 ; 26 : 1 ; 모사이야서 3 : 10
■그가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	에녹, 모세, 사무엘, 욥, 다윗,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리하이, 야곱, 아빈아다이, 앨마, 앰율레크, 레이맨인 예언자 사무엘	모세서 7 : 55~57, 62 ; 사무엘상 2 : 6 ; 욥기 19 : 25~27 ; 시편 16 : 9~10 ; 이사야 25 : 8 ; 26 : 19 ; 에스겔 37 : 12~13 ; 호세아 13 : 14 ; 니파이이서 2 : 8 ; 9 : 4~13 ; 모사이야서 13 : 33~35 ; 15 : 20~24 ; 16 : 7~11 ; 앨마서 11 : 42~45 ; 33 : 22 ; 40 : 2~23 ; 힐라맨서 14 : 25
■그의 부활의 예표	요나	요나 1 : 17 ; 2 : 1~10 ; 앞부분에 나오는 그의 사망에 대한 예표 참조

속죄의 이유와 방법

■속죄는 무한할 것임.	니파이, 야곱, 앰율레크	니파이이서 9 : 7 ; 25 : 16 ; 앨마서 34 : 8~14
■그리스도의 희생은 공의와 자비의 율법을 충족시킬 것임.	야곱, 아빈아다이, 앨마, 앰율레크	니파이이서 9 : 25~26 ; 모사이야서 15 : 8~9, 26~27 ; 앨마서 34 : 14~18 ; 42 : 13~30
■그의 속죄는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육체적인 사망으로부터 전 인류를 구속해 줄 것임.	리하이, 야곱, 아빈아다이, 앨마, 앰율레크, 아론	니파이이서 2 : 8~9 ; 9 : 4~15 ; 모사이야서 15 : 7~9, 20~27 ; 앨마서 11 : 39~45 ; 12 : 21~25 ; 22 : 13~14 ; 40 : 23 ; 41 : 2~15
■그의 속죄는 그를 믿고 회개하여 침례받고 성신을 받아 끝까지 견디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줄 것임. 그리하여 그들은 기쁨과 영생을 누릴 것임.	아담, 이브, 에녹, 노아, 야렛의 동생, 이사야, 리하이, 니파이, 야곱, 베냐민 왕, 아빈아다이, 앨마, 앰율레크, 아론, 침례 요한	모세서 5 : 8~11 ; 6 : 51~68 ; 8 : 23~24 ; 마태복음 3 : 11 ; 이더서 3 : 14 ; 이사야 1 : 16~18 ; 니파이일서 10 : 4~6 ; 니파이이서 2 : 3~29 ; 9 : 10~42 ; 31 : 10~21 ; 모사이야서 3 : 11~21 ; 4 : 5~30 ; 5 : 6~15 ; 15 : 10~19 ; 앨마서 5 : 6~62 ; 11 : 36~43 ; 12 : 12~37 ; 22 : 14 ; 34 : 2~41 ; 42 : 2~28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심

■구세주의 속죄는 영의 세계까지 이를 것임.	에녹, 이사야, 스가랴	모세서 7 : 57 ; 이사야 42 : 6~7 ; 61 : 1 ; 스가랴 9 : 11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후손을 방문하실 것임

■그리스도는 요셉의 후손을 방문할 것임.	요셉, 니파이	요셉 스미스 영감역 창세기 50 : 25 ; 니파이일서 12 : 1, 6 ; 니파이이서 26 : 1

하늘로 오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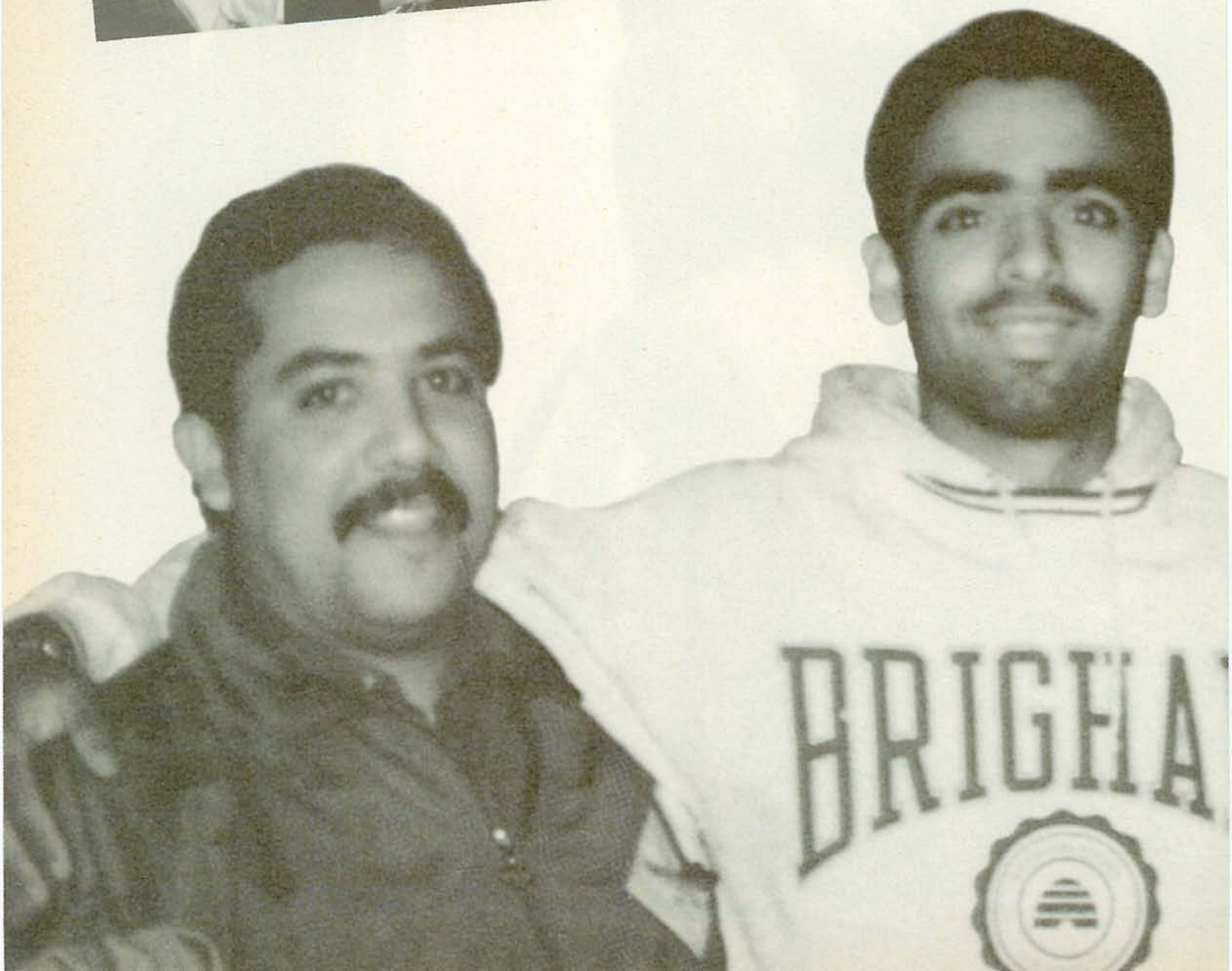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임.	에녹	모세서 7 : 59 □

브롱크스의 소년

엘리자 터너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와 애벌리 가족

고등학교 상담 교사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여러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면, 조금쯤은 걱정스럽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뉴욕시의 카톨릭 신학교에 다니는 4학년생인 리차드 애벌리였다면 특별히 더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리차드는 텔레비전에서 몰몬 교회에 대한 광고 방송을 보고 선교사들과 만나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누구에게도 자신이 침례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은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지난 10월의 그 운명적인 날에 상담 교사는 점잖게 "공부는 어떤가?"라고 말을 시작했다.

리차드는 조심스럽게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상담 교사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다른 교회에 나가는가?"

"네."

"어떤 교회인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유가 뭔가?"

"저는 그 교회에서 구세주를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상담 교사가 리차드에게 다른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퇴학 사유가 된다고 주의를 주면서 훈계를 시작했을 때, 리차드는 자신이 그 교회를 포기하겠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편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서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라고 리차드는 후에 말했다.

그 다음날 리차드가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문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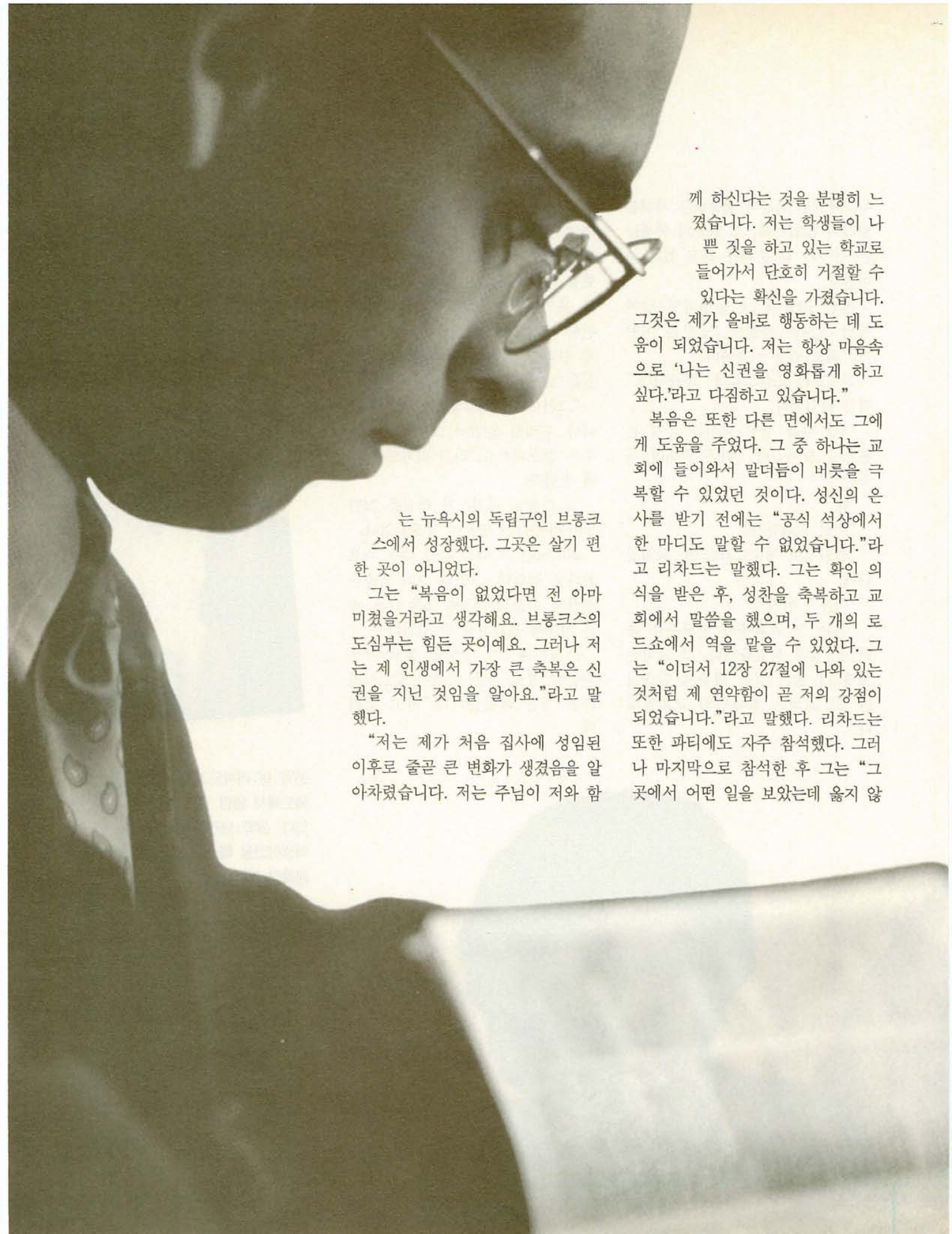
리차드는 그 다음 주가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그를 다른 좋은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다.

리차드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주님이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했다.

반 친구들이 왜 그가 새로운 믿음을 위해 학교를 버렸는지 알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사실상 리차드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해 말할 기회를 준 셈이다.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만이 리차드가 마주쳤던 어려움은 아니었다. 그

왼쪽 위: 리차드가 뉴욕, 브롱크스 와드에서 열린 로드쇼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이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위쪽*: 침례식 때.



는 뉴욕시의 독립구인 브롱크스에서 성장했다. 그곳은 살기 편한 곳이 아니었다.

그는 "복음이 없었다면 전 아마 미쳤을거라고 생각해요. 브롱크스의 도심부는 힘든 곳이예요. 그러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신권을 지닌 것임을 알아요."라고 말했다.

"저는 제가 처음 집사에 성임된 이후로 줄곧 큰 변화가 생겼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학교로 들어가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올바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나는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또한 다른 면에서도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 중 하나는 교회에 들어와서 말더듬이 버릇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신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공식 석상에서 한 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리차드는 말했다. 그는 확인 의식을 받은 후, 성찬을 축복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했으며, 두 개의 로드쇼에서 역을 맡을 수 있었다. 그는 "이더서 12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연약함이 곧 저의 강점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리차드는 또한 파티에도 자주 참석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참석한 후 그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보았는데 옳지 않

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로 그곳이 갈 곳이 못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티에 나가지 않게 되었으며 봉사와 학교 숙제와 경전 공부를 하고 또,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대신 좋은 음악을 듣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깥 활동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는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에서 결혼하며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많은 친구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그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려고 결심한 것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리차드 역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제가 봐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으로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고 생각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고 독특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색다른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결코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 주고 싶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에베소서 2:19)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불렀습니다. 리차드 애벌리 역시 세상의 외인들에게 똑같은 권유를 하고 있다. 브롱크스의 소년은 그렇게 하면서 성인이 되어갔다. □

왼쪽: 유타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에서 리차드는 파라과이에서의 선교 사업을 준비했다. *위쪽*: 선교사 훈련원 동반자인 리카르도 베냐민 모랄레스와 함께. *아래쪽*: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반 친구와 함께.

그림: 로저 모조우스

가르침의 순간

메리 모릴

아들, 앤드류가 네 살 때인 어느 날 나는 그애를 부엌으로 불러서 걸상에 앉히고는 내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얘기를 시켰다. 앤드류가 기기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해 말해 주었다. 앤드류는 열심히 들었다. 그 다음날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앤드류가 다시 와서 그 걸상에 앉아 "엄마, 요셉 스미스에 대해 또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 전날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서, 마치 내가 그애에게 간증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그 일은 토요일까지 계속되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모임을 마친 후 앤드류의 초등협회 교사가 내게 "앤드류에게 어떻게 하셨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무슨 뜻이죠? 앤드류가 오늘 공과 중에 잘못을 저질렀나요?"라고 대답했다.

초등협회 교사는 앤드류가 반에서 그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게 첫번째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깊은 감정을 담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하면서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앤드류의 간증 때문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으며, 다음 일요일 초등협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발표하도록 앤드류에게 지명을 했다. 그녀는 "앤드류가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지 마세요. 오늘 반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니까요."라고 부탁했다.

앤드류가 십대가 되었을 때 나는 앤드류에게 요셉 스미스가 정말로 예언자였음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앤드류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엄마,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라고 말했다. 내가 그에 대한 간증을 언제 얻었냐고 물어 보자 앤드류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생각에 잠기더니, "모르겠어요.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다.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앤드류가 어린 시절, 부엌 걸상에 앉아서 그 간증을 얻었다고 믿는다. 얼마 안되는 그런 귀중한 순간에 나의 간증이 내부에서 불타오를 때, 앤드류 역시 영의 따뜻함을 느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훌륭한 기회는 그런 하찮은 순간에 오는 것 같다. 우리는 그것의 효과를 완전히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 □

성찬을 통해 구세주를 기억함

그림: 로니 클라크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동안, 마지막 순간을 위해 제자들을 한데 모으셨다.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이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이내 홀로 남겨져 그들의 신앙에 적대적인 반대자들과 마주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매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강화시켜 주던 예수님 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들을 위해 구세주께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을 상기하고 지킬 필요가 있었다.

최후의 만찬에 모인 제자들과 후에 자신을 그분의 제자라고 부를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께서는 한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란 바로 성찬으로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구세주의 가르침과 그분의 속죄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외로운 시간에 그분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영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음

빵과 물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하신 구세주의 살과 피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이 상징물들을 취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구세주의 사랑과 고통을 기억할 수 있으며, 아울러 침례받을 때 맺었던 성스러운 약속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그분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삶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을 새롭게 서약할 수 있다.

우리는 이같이 구세주를 생각과 마음속에 불러들임으로써 침례받을 때 느꼈던 영적인 정화를 다시 맛볼 수 있다. 새로운 의욕으로 매일을 맞이하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 매주 죄와 잘못으로 인한 짐을 벗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성신이 함께 해주리라는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한 여성은 구세주를 더 가까이 느끼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교회로 돌아와 성찬을 취하면서 기쁨과 평화를 느낄 때까지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약속은 그녀에게 감미로운 현실이 되었다.

• *성찬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성찬을 신중하게 취하도록 준비할 수 있음

성찬을 취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성찬을 취하기 전에 우리가 완전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성찬을 합당하게 취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찬이 전달되는 동안 가능하다면 모사이야서 18장 8~11절과 같은 성구를 읽으면서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상고해 볼 수 있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자신을 새로이 바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다.

한 젊은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자녀들에게 구세주에 관한 성구를 하나씩 읽어 주고, 자녀들이 닮아갈 수 있는 구세주의 개인적인 특성에 관해 이야기해 준다. 그런 후, 그녀는 자녀들이 성찬을 취하는 동안 예수님과 또한 그들이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특성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격려해 준다.

• *여러분은 어떻게 성찬을 좀더 신중하게 취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가?* □

죄와 고통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일부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 대단히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난 그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할 뿐이야, 그런 다음 재빨리 회개하고 선교 사업을 나가면 (또는 성전 결혼을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갖는 것은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회원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은 재빨리 회개하여 "전처럼 아무일 없는 것 같은 상태로"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식적, 고의적으로 심각한 범법을 자행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목전의 안락이나 쾌락을 위해 죄를 범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결과는 의로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에 관한 결과는 피하고 싶어합니다.

몰몬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들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되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리니,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 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 등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는 내일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라."(니파이이서 28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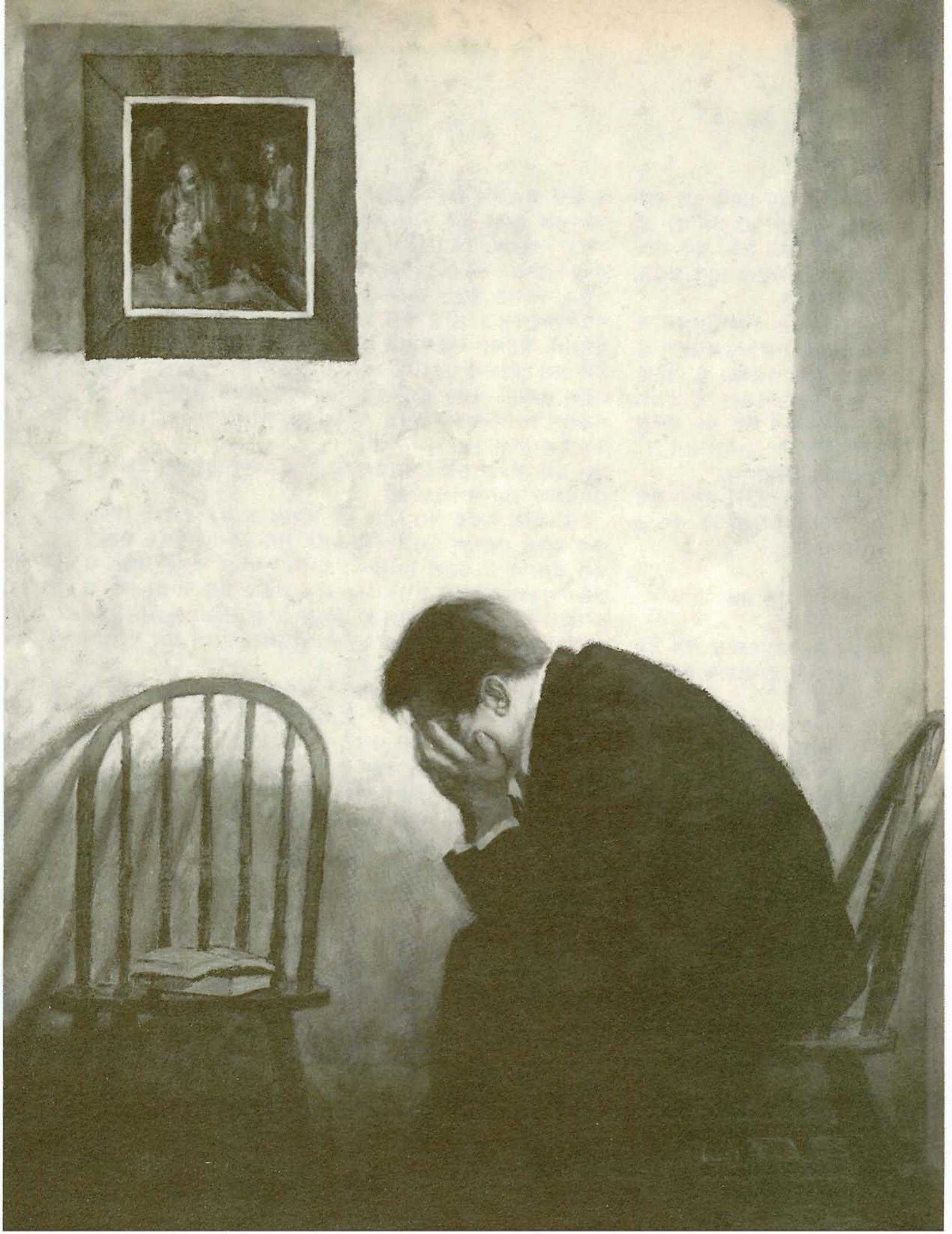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입장은 죄를 한번도 지으신 적이 없었으나 속죄의 희생을 통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구세주의 태도 및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진보를 가로막는 죄들

가능한 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저는 제가 죄나 범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유형의 것들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죄에는 모든 변칙적인 행위 및 모든 청결치 못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같은 넓은 의미의 죄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서 진보해 가는 데 방해되지 않는 모래알같이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죄들은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바위덩이처럼 가로막는 심각한 범법들로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서는 벗어버릴 수 없는 것들 입니다.

어느 식견이 뛰어난 관찰자 한 분은 1주일 동안 유타주에서 발간되는 한 신문에 보도된 여러 가지의 범죄들을 쭉 적은 다음 말일성도가 기소되지 않은 범죄를 모두 지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말일성도가 연루된 죄의 유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 사기
- 불법 약품 판매
- 폭행
- 유괴
- 성적 학대
- 고객과 성적 관계를 맺는 전문직업



교회 선도 조치 기록을 보면 우리는 언론에서 거의 보도하지 않는 범법 가운데 사통, 간음, 일부 다처 및 배도 등 심각한 범법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최후의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실 때에 "마술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삯으로 품군을 억울하게 하는 자… 들에게 속히 증거를 세우"(니파이삼서 24:5)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심각한 범법의 일부 예입니다. 또 다른 예도 들 수 있습니다.

기본 원리

이에 대한 배경으로 몇 가지 익숙한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생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살피시는 것입니다.(아브라함서 3:25 참조)

2. 그러므로 이생은 앨마의 이야기대로 '시험의 시간이요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앨마서 42:4 참조)입니다.

3.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4.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앨마서 11:41; 니파이삼서 26:4; 교리와 성약 19:3 참조)

5. 모든 죄에는 "형벌이 마련되었"(앨마서 42:18; 또한 아모스 3:1~2 참조)습니다.

6.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 생애 동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과 무서운 가책으로 서게"(야곱서 6:9)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저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깨닫는 무서운 자책"(모사이야서 3:25)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슴을 죄의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고통과 번뇌로 가득하게 하시리니,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길 같아 그 불꽃이 영원토록 타오르리라."(모사이야서 2:38)

7.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공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비참한 결과, 즉 이 경전에 설명되어 있는 "비참하며 끝없는 고난의 처소"(모사이야서 3:25)로 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중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들은 지금 당장 죄의 효과나 유익을 얻은 뒤 재빨리 그리고 비교적 고통을 덜 당하며 회개하면 곧바로 전처럼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상태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고의적으로 중대한 범법을 자행하는 해이된 말일성도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몰몬경에는 구세주께서 백성들을 "죄진 그대로"(앨마서 11:34, 36, 37; 힐라맨서 5:10) 구속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죽음의 사슬에서 풀릴 뿐 구원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리라"(앨마서 11:41). 구세주께서는 인간이 "회개"한 뒤 "회개의"(힐라맨서 5:11) 조건에 부합할 때, 그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여기에는 그분의 속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앰율레크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신앙을 쌓지 않은 자들은 공의의 요구의 법에 따라 심판 받을지니, 신앙을 갖고 회개한 자에게만 크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내려지리라"(앨마서 34:16).

죄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회개의 또 다른 조건 한 가지는 죄로 인해 고통이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앨마는 "영원한 형벌이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것"(앨마서 42:16)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경전 가운데에서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1830년 3월에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일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9편 참조)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오는 "무한한" 또는 "영원한" 형벌은 끝이 없는 형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10~11절 참조)

이 계시를 통해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여… 너희 고난이 극심하지 않게 하라. 그 고난은 얼마나 극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

앨마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하여 용서를 받기까지 사흘 동안 "「그의」 지은 죄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 (앨마서 36:5~23 참조)았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 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

"그런고로 나는 또다시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니, 내가 나의 전능한 힘으로 너희를 낮추게 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죄를 고백하라. 그리하여 내가 말한 형벌 중 가장 작은 것이라도 겪지 않게 할지니," (15~20절)

죄짐을 견딤

이같이 엄격한 구세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재빨리 편안하게 회개한 뒤 회개를 외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등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정신, 즉 "마음"의 상태는 무언가 대단히 독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의 특징을 유사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의 어머니는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동안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수선하고 차로 자녀를 등하교시키고 상담해 주고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고 또 어머니로서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필요 사항을 들어주는 등, 그 많은 가족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헌신합니다.

벙어리가 된 앨마 이세. 제리 하스턴

어머니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어떤 짐이든 지워진 것은 모두 나르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대부분은 그러한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어머니의 짐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어머니가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하신다는 것을 이용해서, 피곤한 어머니 앞에 생각없이 더욱더 많은 일거리를 마구 쌓아 놓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그런 문제라면 걱정마세요. 엄마가 다 할 테니까요.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에게 맡기면 우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구요."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저는 이 비유에서 그 경솔한 자녀들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고통의 짐을 대신 져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대입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짊어지는 분은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무임 승차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경솔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속죄의 혜택을 입을 수 없다는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죄와 고통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모든 고통을 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어떤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모두 그러한 자들이 짓는데, 고통은 모두 주님이 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목적지로 이어지는 확실한 통로인 회개는 무임 승차가 안됩니다.

다음 두 개의 성구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벌이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2) 구세주께서는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모든 고통을 겪으셨으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교리와 성약 19:16~17)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범법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고통을 직접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회개한 사람은 구세주께서 형벌을 완전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전혀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는 구세주의 다른 가르침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회개하는 사람은 구세주께서 그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것처럼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은 얼마간의 고통은 받겠지만 자신의 회개와 속죄로 인해 구세주께서 겪으셨던 것만큼 "격심한" 정도의 영원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에 관해 폭넓은 가르침을 주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개인적인 고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격심한 고통을 겪기 전에는 회개가 시작될 수 없다… 만일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2년, 88, 89쪽)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마음이 겸허하며 뉘우침의 영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속죄의 희생을 하셨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율법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니파이이서 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뒤 상한 심령과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죄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실로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앨마서 42:24)라고 한 앨마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브루스 시 헤이펀은 일부의 사람들이 "재빨리 고백하거나 쉽게 사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회개」의 지름길과 그 응답을 쉽게"(상한 심령, 솔트레이크시티 : 데져렛 출판사, 1989년, 150쪽) 찾는가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사람들은 그저 불행한 사건에 대해 슬픈 모습을 보이거나 후회의 말을 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이미 회개했으며 용서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87쪽)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포함하여 "회개를 이루는 것"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린도후서 7:10)과 자신이 연루된 것에 대해 쉽고 비교적 고통스럽지 않게 슬퍼하는 것, 즉 몰몬이 "주가 저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에게 행복을 용납치 아니하시매,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 슬퍼하였음이라."(몰몬서 2:13)라고 이야기한 잘못된 슬픔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앨마 2세는 쉽고 고통스럽지 않게 나타내 보이는 슬픔은 회개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몰몬경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의 경험은 회개의 과정이 죄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경전에서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앨마는 사악한 생활들에 사로잡힌 자신이 "암담한 심연에"(모사이야서 27:29) 있었다고 말했으며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심한 괴로움과 고통이 나를 사로잡으매 영원한 고통에 싸여 있었느니라.

"참으로 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한 나의 모든 죄와 간악함을 기억하였고"(앨마서 36:12~13)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영혼"이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힌 바 되었"(14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지은 죄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17절)았던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심한 영육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낸 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간청하여 "죄사함"(앨마서 38:3)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회개의 과정에서 고통을 견뎌내야 하며, 범법이 중하면 그 고통은 격심하고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법한 뒤 파문당했으나 회개하고 있는 한 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로 보낸 오랜 시간", "첩첩 산중에 숨어 버리고파", "부끄러워 고개도 못들고", "어두운 암흑", "영원할 것 같은… 번민"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은 왜 필요한가

심각한 범법을 했을 경우, 회개하는 과정에서 왜 고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의 결과를 죄로부터 단순히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교리와 성약 19:16~17).

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부분을 바로 보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바람에 쉽게 휘어지는 나무와 같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치는 날, 그 나무는 땅쪽으로 깊이 휘어져 잎들이 죄에 비유할 수 있는 흙탕물을 흠뻑 뒤집어쓰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잎사귀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둔다면 그 나무가 휘어서 잎사귀에 온통 흙탕물이 묻게 한 원인이 된 그 나무의 허약한 상태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죄라는 흙탕물이 묻은 것만 유감스러워 하는 사람은 다음 번에 바람이 거세게 불면 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강건해 질 때까지 흙탕물에 자꾸 묻기 쉬운 상태가 지속됩니다.

경전에서 일컫는 바 상한 심령과 참회하는 영을 가져오는 과정을 경험할 때, 사람은 구세주께서 단순히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이상의 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구세주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됨의 목적을 깨닫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그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히 청결한 것 그 이상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도덕적으로 심약하여 죄를 범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강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의 말씀대로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모사이야서 3:19)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라는 경전의 설명과 같습니다. 죄를 버린다는 것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죄를 버린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마음의 큰 변화

베냐민 왕과 앨마는 둘 다 마음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 윌리엄 헨리 마셜슨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왕의 말씀을 듣던 회중들은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모사이야서 5:2)라는 말로 그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앨마는 백성들이 "주님께로 깨어났"고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마지막까지 충실"(앨마서 5:7, 13)하였다는 이야기로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한 실례를 들었습니다. 앨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를 "신앙의 눈으로"(15절) 기다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마음에 그러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강건함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경고에 주의를 기울임

회개는 쉬운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일부 말일성도들은 사람이 죄를 지어 회개하고 난 뒤 더 좋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죄를 조금만 경험해 보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권고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남녀 노소 형제 자매 여러분, 범법을 피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쉽게 회개할 수 있다는 주장, 또는 사람이 죄를 지어 회개하고 난 뒤에 더 잘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악마의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주먹으로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거나 어떤 화공약품을 혼합하면 폭발하여 우리의 살이 타버린다거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여 배우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에 진지하게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고로 부상을 입고 몸에 흉터가 남아도 정말 더 잘 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에 외상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더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미 경험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 있는 경고를 통해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범법이 우리의 영혼을 상처입히고 영원한 복지를 파괴시켜 버린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그 결과를 개인적으로 경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전, 제 아들 아이 하나가 저에게 술이나 담배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맛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왜 좋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혜의 말씀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물은 것은 바로 왜 그러한 것을 직접 알아보면 안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일 그렇게도 무언가를 시험해 보고 싶다면 헛간에 가서 퇴비를 먹어 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 아이는 몹시 놀라며 움찔했습니다. 그러고는 "으~ 구역질 나잖아요."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기쁘구나. 하지만 네가 직접 알아보기 위해 한번 시험해 보지 그러니? 네가 알기에 너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시험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원리를 몇몇 다른 것들에도 적용해 보지 그러니?"하고 말했습니다. "네가 직접 그것을 해보는 것"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 실례는 열 여섯 살의 아이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종종 청소년들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로서는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다음 중요한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자신이 십대에 저질렀던 비행이나 범법을 목격했거나 함께 가담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청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소녀는 몇 년 후에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소녀는 여러분의 미래의 감독님이나 스테이크 부장님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형제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자매나 가장 절실한 친구의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러분의 미래의 감독단 보좌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부하 직원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좋지 않고 당혹스러운 추억으로 짐지워지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릇 죄를 회개한 자"

제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의 대부분은 회개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회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너무나 다정다감하고 양심적인 분들이라서, 생활하는 동안 도처에서 죄를 발견하며 다시는 청결하게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갖고 맙니다. 죄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변화되라고 분명하고 크게 권고하는 소리는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무기력과 절망감만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 유형의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이에게는 교리적으로 거의 강하지 않은 권고라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권고일 수 있다는 현실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참되지만, 특히 회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맺고자 합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계속해서 행해야 할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로마서 3:23)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가능하며, 용서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회개하려는 사람[은] 죄의 추악함이나 가증함을 보고는 기가 질려서 '과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심히 낙담하고 자기의 무력함을 느껴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한다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가 마음속에 메아리쳐 올 것이다."(*용서가 낳는 기적*, 307쪽)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자비로 우리들 마음에서 죄를 씻어 주"(앨마서 24:10)실 것이라는 약속이야말로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이사야 1:18)라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또한 예레미야 31:34; 히브리서 8:12 참조)라고 하신 약속은 그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참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회개의 조건과 그분의 속죄를 통해 주어진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노래 가사

페이지 매리엇

나는 내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자긍심도 잃어버려 스스로를 보살피거나 염려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게 용기를 주려고 갖은 애를 쓰셨으나, 어떤 말씀에도 나는 반항할 따름이었다. 내게 말을 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내 생각 이상으로 화를 내며 크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 나는 부모님이 딸 걱정에 잠못 이루신 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에 어머니는 내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에 가자고 말씀하셨다. "전 그런 시시한 노변의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아요!"하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언제나 논쟁 거리만 찾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나의 비참한 모습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된다, 얘야. 넌 꼭 가야 한단다."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이미 친구들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이 앉아 있는 곳은 회원들이 앉는 자리가 아닌 단상이었다. 나는 눈에 안 띄려고 애를 쓰면서 자리에 앉았다.

청소년 지도자 한 분이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페이지, 우리와 함께 노래하자꾸나."

"죄송해요, 데인즈 자매님, 전 한 번도 연습에 오지 않았는데요. 또 노래 제목도 모르구요."

"걱정 말아라. 넌 잘 할거야."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셨다.

벌써 스테이크 부장님은 "스테이크의 뛰어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을 소개하고 계셨다. 나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를 시작하자, 예배당 안에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나의 두 뺨에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나는 그 노래의 가사를 알고 있었다. 나는 끝까지 모두 불렀다.

그 노래는 다름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였다.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부모님은 맨 앞줄에서 미소를 짓고 계셨다. 부모님은 눈으로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하고 말씀하고 있었다.

문득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나를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께 *보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노래의 가사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제 그 가사는 결국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자리잡고 있다. □

요셉 스미스 기념관

1841년 1월, 성도들이 일리노이주의 나부 시를 세우는 동안, 주님은 종들에게 "내 이름으로 집 한 채를 지을지니… 그 집을 나부관이라 칭하"라고 권고하셨다. 주님은 그 집이 피로에 지친 나그네가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고 "내가 세워… 시온 성 위에서 망보는 자같이 되게 한 자로부터 조언을" 듣는 "즐거운 처소"(교리와 성약 124:22, 60~61)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 계시에 따라 성도들은 벽돌과 회반죽을 사용하여 집 한 채를 짓기 시작하였으나 나부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던 일을 박해 때문에 그 집을 모두 완성하지도 못한 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그 나부관에 대한 생각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

거의 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 이상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중심에 서 있는, 눈부시도록 하얀 한 건물에 간직되어 있다. 이전에는 유타 호텔로 사용되었던 이 76년된 건물은 교회가 접대와 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이 단장하였다. 방문객들과 성도들이 모두 이곳에서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세워 시온 성 위에서 망보는 자같이 되게 한 자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이 건물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기리는 존경과 사랑의 정신으로 요셉 스미스 기념관이라고 재명명되고 헌납되었다.

그 이름은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영감을 받아 생각해 낸 것이다. 어느 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여, 창밖의 성전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때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는 요셉 스미스를 기리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 눈부시도록 하얀 요셉 스미스 기념관은 솔트레이크 성전 길 건너 편에 위치해 있다. *오른쪽*: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요셉 스미스의 동상이 아름답게 복원된 응접실에서 방문자들을 따뜻하게 맞고 있다.**

위, 왼쪽부터: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10층의 식당; 대작인 영화 유산(Legacy)을 관람할 수 있는 5백석 규모의 극장; 방문자들이 계보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130대 이상의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는 가족 역사 센터. *오른쪽*: 이 기념관에는 솔트레이크시티 시내의 와드들이 사용하는 예배당도 자리잡고 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문득 '요셉 스미스 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대관장단에, 다음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그 이름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 생각에 찬성하였다.(*처치 뉴스*, 1993년 7월 3일자, 3쪽 참조)

이 10층짜리 건물을 처음 들어가면 거대한 응접실이 있는데, 이곳에는 이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의 웅장한 모습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다. 지금은 나부실이라고 불리는 방의 입구 앞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예언자 요셉의 동상이 서 있다. 이 동상은 높이가 3미터 정도나 되어 매우 육중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예언자의 얼굴에 가득한 온화한 미소를 보면 이내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방문자들은 아래층과 이층 사이에서 응접실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아래층과 이층 사이에 있는 방들은 현재 예배당, 상호부조회실, 몇 개의 공과실, 사무실, 도서실 및 작은 부엌 등으로 개조되어 있다. 이 시설들은 솔트레이크시티 시내에 있는 와드들이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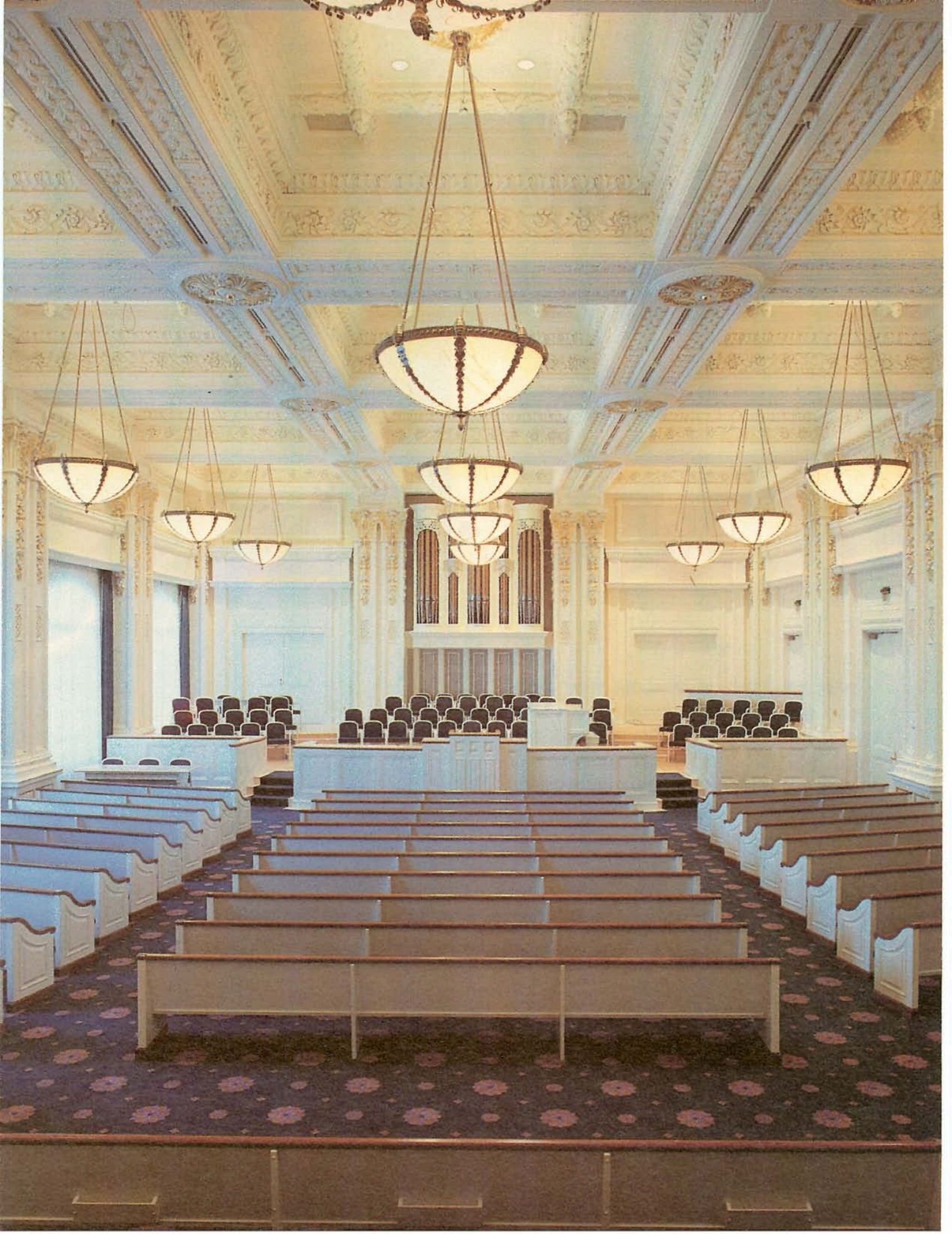
1층에서 약간 아래로 들어간 곳에는 대형 가족 역사 센터가 있는데, 이곳에는 자신의 계보를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방문자들을 위해 130대 이상의 컴퓨터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다. 4층에는 60대의 컴퓨터 작업대가 더 설치되어 있다.

응접실에서 몇 계단만 올라가면 안락한 시설을 갖춘 극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유산(Legacy)*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이 영화는 최근에 제작한 것으로 초기의 말일성도 개척사를 그린 매우 감동적인 영화이다.

맨 꼭대기 층인 10층의 식당 두 곳에서는 매우 장엄한 솔트레이크 계곡의 전경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기념관에는 교회 본부 사무실들과 배부 센터 및 비하이브 클로딩 의료 판매소가 위치해 있다.

"이 기념관은 오래도록 보존되고 다듬어져,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가고 있는 이 위대한 사업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자에 대한 추모의 정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처치 뉴스*, 1993년 7월 3일, 4쪽)라고 힝클리 부대관장은 말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요셉 스미스를 추모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서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한량없이 기쁩니다. 이곳에서 예언자 요셉의 이름에 찬양을 보낼 이들의 수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으로 늘어날 것입니다."(*엔사인*, 1993년 9월호, 34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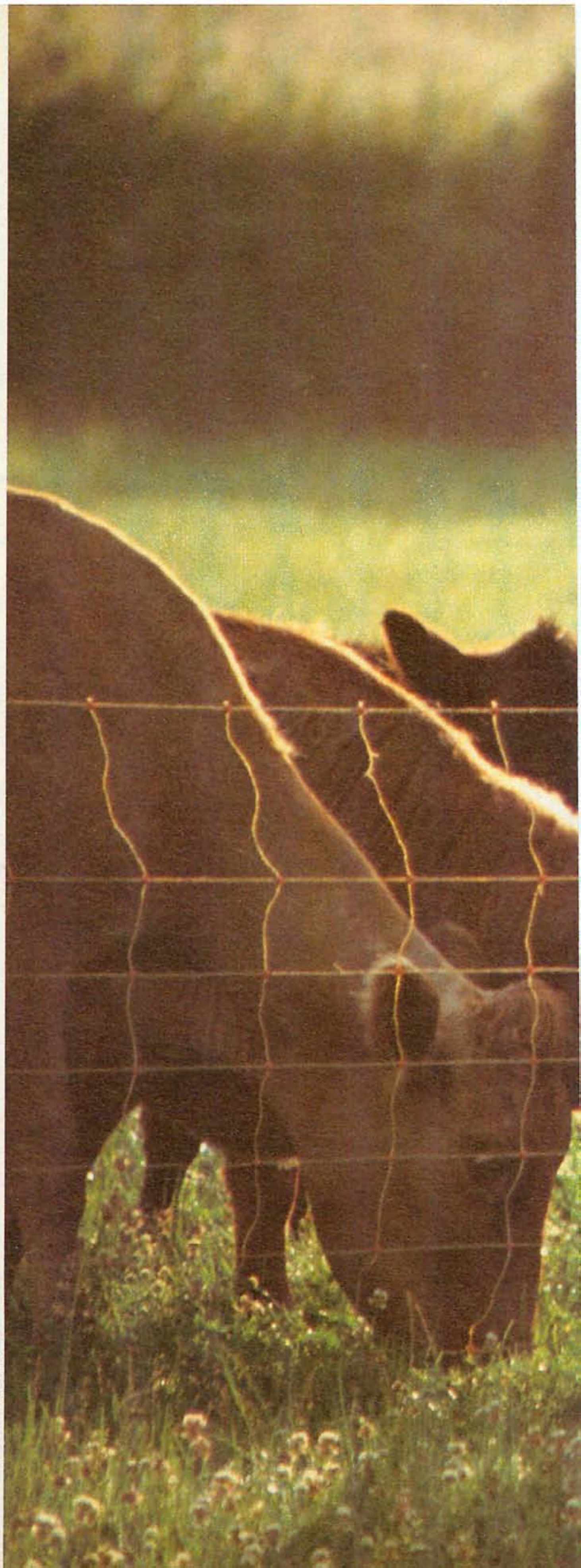
다 같이 하나되어

리차드 엠 롬니

영국이 농업 국가였을 때, 해마다 가을 행사의 하나로 옥수수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인연을 위해 밀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선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옥수수 인형은 또한 한 해 동안 일한 것이 풍성한 추수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서머셋에 있는 일민스터 가까이에 있는 브로드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열 여섯 살 난 제니 플린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에게는 학교에 가기 전에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어야 하고 소의 젖을 짜야 하는 등—적어도 한 시간은 걸리는—허드렛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상도 따릅니다. 아침의 공기는 상큼하고, 그것을 깊이 들이마실 때 제니는 상쾌한 기분을 느낍니다. 햇빛은 따사롭고, 태양이 안개를 걷을 때는 노랗다 못해 갈색까지 띱니다. 대지는 습하지만, 이슬은 모든 식물을 수정으로 덮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일어나서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입니다.



생활은 바쁘지만 모두가 돕기 때문에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 버스를 기다리거나 엄마나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플린가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이 웃음으로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니는 큰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사는 것은 꼭 감사 기도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삶이고, 삶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뿐이 아님

플린가의 사람들 중에 제니만이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시 십오 분이면 제니의 열 일곱 살난 오빠인 피터는 브로드웨이 거의 모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벌써 자전거를 타고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피터는 적어도 집을 나서기 전까지는 꼭두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절반쯤 들어서게 되면, 그도 역시 아침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날이 그가 또 하루를 성취해야 할 멋진 기회이며, 정복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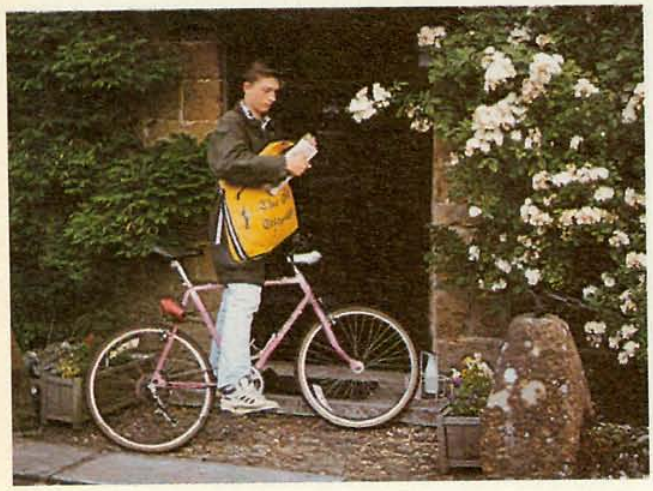
피터는 오늘도 일에 열심입니다. 신문 하나하나를 접어서 문틈으로 집어 넣으면서 선교 사업을 나가기 위해, 계란 파는 일부터 과일 따는 일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항상 그 선교 사업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피터 또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일하는 것을 배워서 기쁩니다. 이것은 그가 선교 사업을 나갔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아침을 시작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기를 배움

제니와 피터는 플린 부부의 장녀와 장남입니다. 이들 외에도 열 네 살난 린지, 열 두 살인 닐, 아홉 살인 엘리자베스(리지), 그리고 다섯 살인 레이첼이 있습니다. 6에이커 짜리 플린가의 작은 농장을 방문하게 되면 일에 관해서 박식한, 두 명이 아닌, 여덟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성공적인 가족을 만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로 이사오게 된 것은 아이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 자신의 느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라고 농장을 운영하면서 세미나리 교사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플린 형제님은 설명합니다. "일 때문에 저는 여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마을에 들어가 사는 것이 더 수월하겠지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사를 간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거에요. 그 가축들을 모두 다 키울 수도 없을 것이고,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자질도 배울 수 없을 거에요. 우리는 아마도 일을 사랑하는



플린가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신문을 돌리는 일이거나 농장의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나, 일은 좋은 것이다. *옆 쪽 왼쪽부터*: 닐 12세, 린지 14세, 브루스(아버지), 마가렛(어머니), 리지 9세, 피터 17세, 레이첼 5세, 그리고 제니 16세.

법을 모를겁니다."

일을 사랑하는 법이라고요?

플린 형제님은 "우리는 일의 원리를 믿어요.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결과적 산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동의를 할까요?

린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불평을 하면, 엄마는 우리에게, '좋아. 그럼 마을로 이사를 갈까?'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 누구도 '네'하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난 여기 이대로가 좋아요." 피터의 말입니다.

함께 일하기

지금 그들의 일에 대한 자발적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도 플린가의 사람들을 완벽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도 장난하고, 싸우고, 울고 하는 여느 가족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가족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뭐지?" 제니가 질문합니다. "인내지, 주로."

그럼 그녀가 한번이라도 그녀의 가족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귀찮게만 안하면요." 그녀는 장난스레 대답합니다.

가족 중에도 그녀의 웃기는 재주는 탁월합니다. 그들은 말싸움을 즐기지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난관에 맞서기

그 밖에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힘든 일은 시간을 쪼개서 나눠 쓰는 거에요." 제니가 말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 동물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것이 아침 저녁으로 두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학교에 가야해요. 또 밤마다 학교 숙제를 두 시간씩 하고, 세미나리는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서 그것을 할 시간도 내야 해요."

집이 외딴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활동은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 집은 스테이크 센터에서 5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요." 피터가 말합니다. "대체로 교회

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으며, 회원들이 모두 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권회에는 두 명밖에 없는데, 다른 한 명은 40마일 떨어진 곳에 살아요. 우리는 그가 신권회에 나오고 싶어하는지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외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든가 하는거죠. 거리가 멀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학교에서도 말일 성도라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 두 살인 닐이 말하기를 무슨 조사를 했는데 자기 반 전체에서 술을 마셔 보지 않은 아이는 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법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보상은 무엇일까요?

제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훌륭한 교훈을 배웁니다. 세미나리에서도, 그리고 집에서 하는 가정의 밤에서도요. 우리는 금요일(뮤츄얼 나이트-상호 향상 모임)과 일요일에 교회의 애들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에게서 힘을 얻어요. 마치 세상을 그 모임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경전 읽기와 기도와 가족의 지지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린지의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일 거에요. 그들이 없으면 누굴 의지하겠어요?"

그것은 제니가 학기말 시험 때문에 공부하느라 바쁠 때에도 레이첼을 데리러 학교까지 갔다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늦으시고, 아무도 안나타나면 레이첼이 무서워할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니가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그것은 가족 생활의 일부분이고, 플린가의 사람들이 매일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플린가의 거실에 들어서면 벽 한 면이 밀 짚으로 만든 옥수수 인형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짚이 바싹 마르기 전에 엮어서 만들어야지 오래된 걸로 하면 부러지거나 아니면 구부러지지를 않아요."라고 플린 자매가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죠. 우리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가족을 사랑하도록 배우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두 가지를 그들 삶 속에 같이 엮어 넣습니다." □

손과 마음으로 봄

쿵 테드 누언

프릿츠 보울바크는 그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손으로 볼 수 있다. 83세의 보울바크 형제는 약 이십 칠 년 전에 시력을 잃었다. 그러나 장님이 되었다는 것이 목수로서의 그의 직업이나 나무 조각가로서의 그의 재질을 향상시키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1957년 그는 백내장 수술 중에 오른쪽 시력을 잃었다. 그는 "일은 계속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회상한다.

그러다가 1966년에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순식간에 보울바크 형제는 그의 왼쪽 눈의 시력마저 잃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엉망이 되어 버렸죠. 어둠이라는 건 정말 끔찍했습니다."

암흑으로부터

한동안 보울바크 형제는 영적인 시력마저 잃고 있었다. 1921년 고향인 독일에서 침례받은 날부터, 그는 인생의 초점을 복음에 맞추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고 이후를 회상하며 "전 기도를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내 엘리가 계속 함께 기도하자고 했지만, 전 거절하고 비난하는 투로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내가 장님이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하고 대답했습니다."라며 착잡한 마음으로 말한다.

그 사고가 있은 지 약 이 주일

사진 촬영 제드 테라클

후의 어느 날 아침까지 그는 영적인 암흑 속에 있었다. 엘리는 매일 아침 일하러 가기 전, 보울바크 형제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혼자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보울바크 자매가 기도를 마친 후에 프릿츠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데, 그녀의 눈물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는 그녀의 온화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아내의 차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나서,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하지만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보울바크 형제는 오랫동안 무릎을 꿇은 채 있었다. 그는 여러 번 말을 하려고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매번, 그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과 맞서 싸웠다. 엄청난 노력 끝에, 마침내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이 저를 보호하셨는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그때부터, 보울바크 형제는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며, 근면하게 되었다. "저는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과 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말이다.

예술가의 손

시력을 잃기 전에, 보울바크 형제는 2차 세계 대전으로 집을 잃은 독일의 말일성도들을 위해 목수로서의 재능을 사용해 집을 지어 주었다. 그는 또한 교회를 짓는 일도 도왔다. 1956년 보울바크 형제는 유타로 이사했으며, 7년 후에는 미국 시민이 되었다.

1966년, 시력을 잃어버린 고난은 당했지만, 보울바크 형제는 그의 목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조각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또 그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돕고 싶었다. "저는 그 무기력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장애인도 여전히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몇 주 후에 그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맹인 학교에 등록을 하였다.

그 학교 주임으로 있는 골든 클레그는 지금껏 수백명의 맹인에게 나무 조각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프릿츠 보울바크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제가 한 일이라곤 그의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앞을 보지 못한다면 으레 그렇겠지만, 그도 처음에는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 두려워하더군요.

끌로 나무를 파내면서 보울바크 형제는 위험하기는 했지만 나무의 결과 모양을 느끼기 위해 손가락에 의지했다. 작품을 망쳐서 부숴 버리더라도 그는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몇 주 동안 망치기만 하더니 결국에는 작은 체스 말 하나를 완성했죠." "한 달 후, 보지 않고 조각해서, 체스 판하고 체스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라고 보울바크 형제는 회상한다. 졸업하는 날 그는 그 체스 세트를 학교에 기증했다. 클레그 형제는 그 세트를 주 경연대회에 출품해서 일등 상을 수상했다.

보울바크 형제는 새로운 재주를 습득한 후 그 자신이 성공했듯이 남들을 돕는다는 다음 목표에 착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정부의 지원으로, 보울바크 형제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나무 조각 기술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훌륭한 경험을 하였다. 한 가지 특별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있다. 크리스마스 두 주 전이었는데, 그는 혼자 있었다. 보울바크 형제는 아내에게 주기 위해 목각 사슴을 조각하고 있었다. 그는 사슴의 몸통과 날씬한 다리는 쉽게 끝낼 수 있었지만, 눈은 도저히 조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저는 일어나 작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인 '늘 함께 합소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고 나서 다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 시간도 넘게 찬송을 부른 후에, 보울바크 형제는 조각칼과 나무를 집어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눈을 조각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 포기해 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프릿츠, 포기하지 마. 다시 한번 해봐.'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눈을 조각하지 못하고 조각칼을 놓아 버리고 말았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또 한 시간 동안 작업장을 돌아다녔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한동안 찬양하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많은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각칼을 집어 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조각했으며, 잠시 후에 머리 조각을 끝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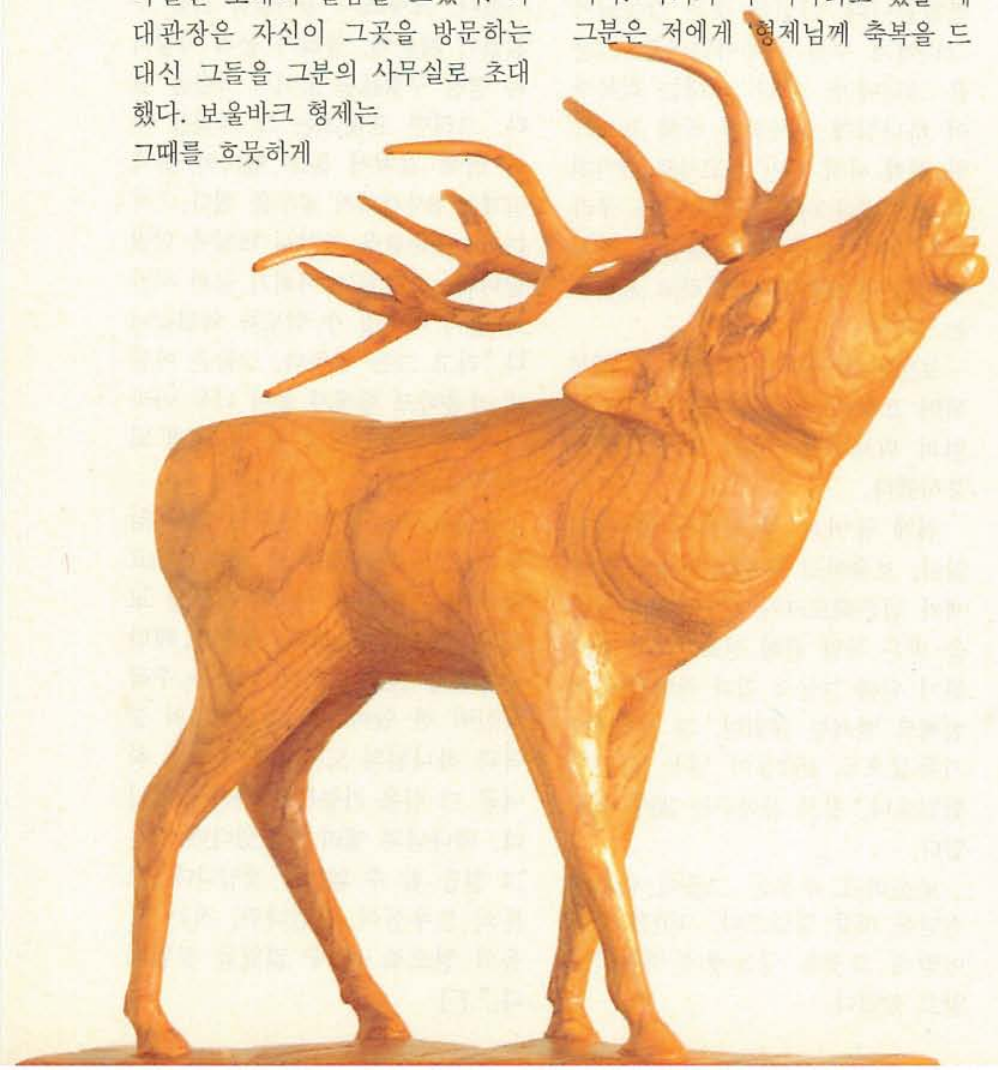
보울바크 형제는 이제 조각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그는 굳은 살이 박혀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으로 만든 조각들(여러 종류의 동물들과, 체스 세트와, 캐비넷들과 탁자 등 여러 가지)을 자랑스럽게 가리킨다. "저는 종종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작업장에 앉아 조각을 하곤 했지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그 사슴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지 일년 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한 화랑에서 그의 놀랍도록 정교한 작품들을 특별 전시하였다.

보울바크 부부는 헤롤드 비 리 대관장에게 그 화랑을 방문해 달라는 특별한 초대의 말씀을 드렸다. 리 대관장은 자신이 그곳을 방문하는 대신 그들을 그분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보울바크 형제는 그때를 흐뭇하게 회상한다. 그는 리 대관장님께 드리기 위해 야생마가 통나무를 뛰어넘는 조각을 만들었다.

"저희는 그분의 사무실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방문을 마치고 그분은 우리와 악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막 떠나려고 했을 때 그분은 저에게 '형제님께 축복을 드리니, 평안이 형제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리 대관장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평안을 한번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항상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의 고된 작업과 인내로 얻어진 그 평안은 보울바크 형제의 깊은 녹색 눈속에 드러나 보인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을 보여 주고, 그의 커다란 체구는 오랫동안의 노동으로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강인한 채로 남아 있다. 그의 간증은 희생과 교회에 대한 봉사로 지어진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다.



독일로의 선교 사업

보울바크 형제의 봉사의 대부분은 그의 출생지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것이었다. 1969년 프릿츠가 그 작업장을 연 지 6주 만에, 프릿츠와 엘리의 감독이 그들을 그의 사무실로 불러서 한 가지 질문을 했다. 감독은 그 질문을 세 번이나 되풀이 해야 했다. "프릿츠, 주님께서는 형제님과 형제님의 아내가 선교지에서 같이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울바크 형제는 회상한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감독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그는 엘리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는 프릿츠를 한번 힐끗 보고는 말했다.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 드릴께요."

그는 감독에게 돌아가 대답했다. "감독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보울바크 부부는 곧 독일 중앙 선교부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 중의 많은 수가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하거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들이 삶에 대해 또 하나님이 내려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도록 그들을 감화시켰고, 그들을 도왔습니다."라고 보울바크 자매가 설명한다.

그의 첫번째 임무는 겔젠커헨의 지부장으로서 봉사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선교부장이 그를 그 자리에 부름을 주었을 때, 보울바크 형제는 선뜻 나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제가 장님인 걸 아시잖습니까." 보울바크 형제가 그에게 말했다.

"그럼요, 물론 알죠." 선교부장이 대답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보울바크 형제는 일년 후 약한 심장마비 증상을 보일 때까지 그곳에서 지부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그 후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진찰하고는 계속 있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머무르게 되었죠."

그들이 1971년에 선교 지역에서 돌아온 후에, 엘리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프릿츠는 그의 작업장을 다시 열고 작품들을 진열장에 내놓았다. 사람들이 보울바크 형제의 조각을 보려고 몰려 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장님이 그처럼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믿을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상에 올 때 재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재능을 부단한 노력으로 발견하고 실현시키는 것은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1975년 보울바크 형제는 또 한번의 선교사 부름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선교부였다. 그 무렵에, 엘리는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우리가 느꼈던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한 주 동안 아내는 세 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감독님이 그녀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분은 그녀에게, '엘리' 그대는 회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프릿츠와 함께 다시 한번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라고 프릿츠는 말한다.

보울바크 자매는 수술한 후 회복되어 프랑스 국경 가까이에 있는 독일의 피르마젠즈에서 18개월 동안 봉사했다.

집에 돌아온 지 일년이 채 되지 않아, 보울바크 부부는 보울바크 형제가 뉘른베르크의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은 독일 뮌헨 선교부에서 봉사하기 위해 그들의 집과 작업장에 세 번째로 열쇠를 채웠다. 그 지부에는 기록상으로 450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으나, 평균 참석수는 20명 정도였다.

보울바크 부부는 그들이 난관에 직면한 것을 알았으나, 그들은 또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신앙과 기도와 순종과 근면함으로 그들은 비활동 회원들을 방문하는 데 주력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울바크 형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이야기한다. "그 지부는 성장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지부는 세 개의 지부—포이크트, 퓌르트, 뉘른베르크—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과 배움을 위해서

집에 돌아온 후에, 보울바크 부부는 주일학교 교사로 약 10년간을 봉사했다. 프릿츠가 공과들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가 공과 지침서와 경전 구절들을 읽어서 녹음을 했다. 그러면 프릿츠는 그 테잎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듣고 엘리와 함께 길게는 8시간까지 공부를 했다. "저는 그 질문들을 찾아서 테잎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공과 시간에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외웠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마침내 보울바크 형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해임되었다.

보울바크 부부는 교회의 모든 임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배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엘리가 없었다면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마음의 영으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승천, 해리 앤더슨 그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사도행전 1:10~11).

"짚이 바싹 마르기 전에 엮어서 만들어야지 오래된 걸로 하면 부러지거나 아니면 구부러지지 않아요." 자녀를 복음 안에서 강하게 기르는 데에는 밀집 인형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다 같이 하나되어" 38쪽 참조.